



다섯 가지 즐거움 펜타포트 젊음의 문화 광장

굿모닝인천

2007. 6



2007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2006년 7월이 뜨거웠던 이유는 여름철의 태양도, 30°이상의 기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모인 수많은 이들의 熱情이었다.

- 일 시 : 2007년 7월 27일(금) ~ 7월 29일(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유원지 앞
- 출연진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 및 국내 인기 아티스트 등 총 50개 팀 이상 예정
- 티 켓 : 1일권 - 10만원 / 2일권 - 15만원 / 3일권 - 18만원(VAT별도)
- 문 의 : (주) iYescom ☎ 02-783-0114, 인천관광공사 ☎ 032-220-5051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옛 영화 부활한  
패루 앞에 서다



이삼영 作 · 수묵담채 · 35×45cm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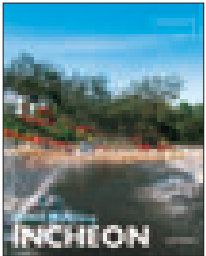
인천이 한국 근대사에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1983년 고종 20년 1월 1일 개항과 더불어서이다. 쇄국의 꿈을 버리고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인천에는 일본지계, 청국지계 등 각국 지계가 생겼다. 청국지계는 1884년 3월 7일 조인돼 이른바 청관이라는 중국인 마을이 해안 지대 중 약간 높은 곳을 중심으로 현재의 내동, 경동, 용동 일대 도로변까지 확장되었다. 이곳 북성동 일대는 중국색이 짙었던 곳으로 한국전쟁 때 많이 파괴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다시 번영을 이루어 중국 동네 입구에 전통식 대문(패루)이 세워지게 되었다.

- 이삼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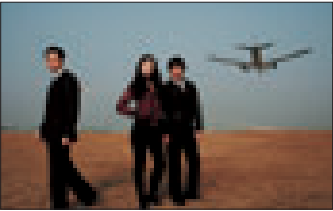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COVER  
동구 송현동 달동네박물관 분수



contents June 2007 통권 162호



04	View	영종, 레저·휴양도시로 꽃핀다
06	가보니 좋았더라	영종·용유도의 이색공간 돌
10	Drama in Yeongjong Aeropolis	에어시티
12	인천 즐기기	天·地·海 이색 레포츠
16	프리즘	시네마천국 인천
20	굿인천 굿뉴스	'송도에 美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외
23	2009 Incheon World City Expo	
24	시의회 소식	'방곡시의회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 외
26	모닝커피 한 잔	함께 사는 연습을 하자
27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출입국사무소에서
28	정보뱅크	우리시 출산장려정책
32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우리 지역의 현충탑
34	Healthy Life 건강백세	중풍
35	재매도시 우호도시 ④	이라크 아르빌
36	문화마을 순례	알, 예술로 승화되다 '에그아트협회'
38	이달의 공연	극단 등이 '블루노트' 외
39	미추홀오페라단 제7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휘가로로 결혼'
40	인천시립무용단 6월 기획공연	'백야' 외
4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7회 정기연주회	교향악의 세계명작 '베토벤 음악여행' 외
42	김치찰각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외
43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내집을 사해(詐害)행위로 잃지 않으려면?
44	인천이 담긴 詩 ⑥	조병화의 인생합승
46	꿀돌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⑥	부평 자동차 산업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인천예총 김진이 씨
52	독자글 마당	이번달 주제 '사진'
54	Info Box	'인천청소년문화대축제열립니다' 외
58	신(新) 인천어부사시	속이 짙 찬 영양탕어리 '바지락'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6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영종, 레저·휴양도시로 꽃핀다

영종공항도시가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로 휴양도시 건설에 불씨를 피웠다. 세계적인 물류·비즈니스도시로 힘없이 성장해 온 인천, 이제 레저·휴양도시로 우뚝 설 날도 멀지 않았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자료제공·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역량이 레저·관광 분야로까지 뻗어가고 있다. 2014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가 도화선이 되어 경제자유구역인 영종공항도시 일대에 레저·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이로써 우리시는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한층 더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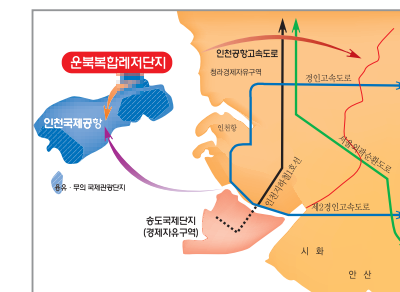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리포컨소시엄의 합작법인인 리포인천개발은 지난 4월 26일 창립식을 갖고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시작했다. 리포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의 레저단지인 리포가라와치와 산업·주거단지인 리포차카랑을 개발하는 등 유통·부동산·금융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화상(華商) 투자그룹.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포인천개발은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해 오는 2008년 말까지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2015년까지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선 역동적인 상업·업무의 허브를 조성하고자 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리조트호텔, 엔터테인먼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세계푸드거리, 국내 외 멀티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상업센터는 보행자몰(Pedestrian Mall)로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그 밖에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국제학교, 메디컬센터, 주택시설 등을 건설하여 업무·상업·레저·거주를 아우르는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다.

이처럼 운북복합레저단지가 조성되면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시설을 건축하는 데 3조5,600여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7조5,882억원, 소득유발효과 1조5,1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1,603억원이 발생하며, 8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우리시는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의 규모와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해 레저·관광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영종공항도시가 레저·관광 개발에 불을 지피면서, 이제 활력 있는 관광산업 도시로 거듭날 날도 멀지 않았다. 경제, 기술, 문화, 관광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명품도시, 바로 인천이다. 🌟



**운북복합레저단지 사업개요**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26번지 일원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업기간 : 2003년~2009년  
 면적 : 2,729천㎡(82만평, 이주단지 1.7만평 포함)  
 총사업비 : 8,181억원(시 기반시설지원비 564억원 포함)  
 합작법인 개발대상지 면적 : 1,841천㎡(56만평)

## 푸른 활력으로 넘실대는 영종공항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외에도 영종공항도시 일대에 레저·관광의 꿈이 영글고 있다. 우선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 인천의 첫 리조트인 '골든스카이 인터내셔널 리조트'가 세워지고 있다. 현재 공사가 15% 진행 중이며 2008년 7월까지 5,000여평에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리조트 내에는 16~116평형 규모의 객실 201개와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용유·무의관광단지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지 213만평 가운데 을왕동~덕교동~무의동 일대 39만평 부지에 해양공원, 전통민속공예촌, 호텔, 쇼핑몰 등 문화시설을 올 하반기부터 건립한다. 지지부진했던 용유도 해상관광호텔 건설공사에도 탄력이 붙었다. 프랑스 투자법인인 쥘아키에스는 을왕리 해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에 객실 960여개를 갖춘 해상관광호텔을 세울 계획이다.



# 그 섬의 이색다른 시간·공간

신록이 우거진 영종도와 용유도에 초록바람이 분다. 공항과 해수욕장으로 대변되는 그 섬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두 곳의 장소가 숨겨져 있다. 초록바람에 몸을 실어 낫선 그곳으로 기행해 본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찾아가는 길 ◀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배를 타고 구읍벙터(선착장)에 내려 공항 가는 길 삼거리로 바로 접어들면 모퉁이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왼쪽 비포장도로로 조금 접어들면 정문이 나온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75번지 ☎ 011-778-2167



## 나그네, 열린 창(窓)으로 다른 세상을 보다

**세계여행문화원** 영종도 구읍나루터 너머에 위치한 세계여행문화원에 가면 인천이 낳은 ‘세계의 방랑자’ 고(故) 김찬삼 교수의 여행 발자취를 뒤쫓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여행가이다. 인천에서 성장한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세계일주여행의 꿈을 키웠다. 1959년에 첫 해외여행을 시작으로 지구를 32바퀴를 돌며 세 번의 세계일주를 했다. 여행은 그에게 삶 그 자체였고 숙명이었다. 몇 개월씩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곧바로 다음 여행을 위해 다시 붓짐을 꾸리곤 했다. 14년 동안 160여 나라 1천여 도시를 직접 발로 밟으며 세계를 품에 안았다.

직접 체험한 세계 곳곳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 여러 권의 책으로 엮었다. 당시 웅만한 가정집의 서가에 꽂혀있던 ‘김찬삼의 세계일주 여행 전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보며 세계를 엿보고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다.

영종도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쳐 버린 그의 심신을 달래주던 곳이었다. 번잡한 도심에서 툭 떨어진 이곳 영종도에서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며 기운을 충전시켰다. 선구자이자 개척자였던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여행을 떠났다. 그 자리에 아들 김장섭 씨가 ‘세계여행문화원’이란 문패를 달았다. 2,700평 부지에 기념관과 여행도서관, 그리고 여행카페 등으로 꾸몄다.

고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기념관에 들어서니 여행가의 체취가 물씬 배어 나왔다. ‘C.S Kim’이란 이니셜과 태극기가 새겨진 국방색 배낭, 높은 산에서 다른 세상을 굽어봤을 검은색 쌍안경, 세상 끝까지 밟았던 그의 두 발을 찍은 청동부조,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던 육필원고, 아프리

카 여행 중에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 찍은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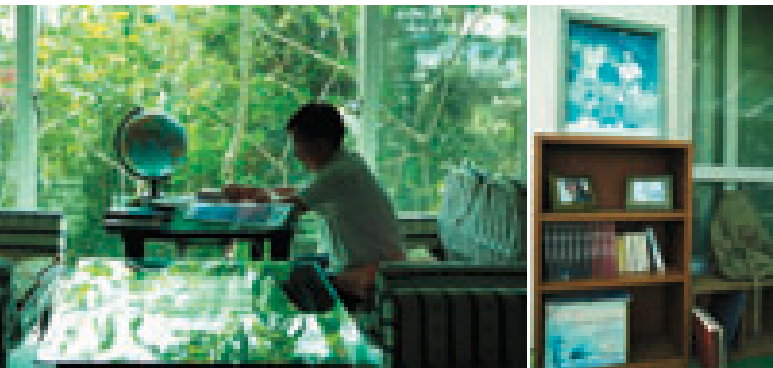
여행도서관에 들어서면 책 냄새와 여행가의 묵은 땀 냄새가 어우러진 향내가 풍겨 나온다. 이곳에는 그의 여행보따리에 함께 담겨져 왔을 손때 묻은 책과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여행 관련 책 등 1,300여권의 책들이 전시돼 있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해안 절벽 끝에 위치한 문화원은 조망이 뛰어나 반나절 휴식처로도 손색이 없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자신이 꿈꾸고 있는 여행이 시작된다. 전망 좋은 노천 테라스카페에 앉아 짙은 향의 커피 한 잔을 마시노라면 마음은 어느새 지중해의 한 섬에 앉아있게 된다. 은빛 날개 번쩍이며 푸른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와 기적소리 울리며 망망대해로 향해 나가는 선박들의 모습을 보면 잠자고 있던 역마살이 슬그머니 발동한다.

영종도 개발계획에 의해 이곳은 현재 공원부지로 수용돼 있다. 김장섭 원장은 “우리나라 여행문화를 개척한 선친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여행가들의 교류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변이 공원으로 개발되더라도 근린공원 안의 이색문화원으로 존속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길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배를 타고 구읍벤티(선착장)에 내려 공항가는 길 삼거리로 바로 접어들면 모퉁이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왼쪽 비포장도로로 조금 접어들면 정문이 나온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75번지 ☎ 011-778-2167



## 나그네, 한옥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유(留)하다

### 조병수 가옥

용유초등학교 조금 지나 길을 물었다. “조병수 가옥이 어디에 있죠?” “누구네 집?” 발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문화재명으로 여쭙었다가는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바로 말을 바꾸었다. “이 마을에 오래된 집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하, 그 옛날 집?” 할머니 손가락을 이정표 삼아 꼬불꼬불 논두렁길을 지나자 야트막한 산기슭에 아담한 한옥 한 채가 보였다.

개량 한복을 입은 남자가 두툼한 손을 내밀며 방문객을 맞는다. “내가 조병수 올시다.” 문화재 자료를 참고하면서 ‘조병수’라는 이름은 옛사람, 그러니까 이 마을의 현감 정도 지냈던 인물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간 것이 잘못이었다. ‘조병수 가옥’은 ‘가옥’이라는 단어 앞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하나의 브랜드가 된 이름이다.

대청마루에 올라 한쪽 벽면을 보니 그곳에 비로소 옛사람들이 있었다. 조병수 씨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의 빛바랜 흑백사진을 끼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 집은 고조할아버지가 1890년경에 지은 집이다. 120년에 걸쳐 5대가 살아 온 집으로 황해도 이남의 해안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중상류층의 가옥이다. 건평 60평으로 안채와 대문채가 연결된 ‘ㄷ’자 형태의 기와집이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답디 나무로 엮은 들보와 서까래, 반질거리는 마루바닥 그리고 뒤주와 벼루집 등 고옥(古屋)을 꾸며주는 각종 소품들이 정감을 준다. 다만 마루 한가운데 사각 테이블과 의자가 좀 거슬린다. 얼마 전에 영국사위를 맞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 논 것이란다. 이제 손님도 치

“손님들은 사랑방과 대문채에 하룻밤 유하면서  
잃어버렸던 외갓집의 향수를 되새겨 본다.  
외국인들은 자연친화적인 한옥과 우리 음식에 매료되어  
그 집을 나설 때 어김없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든다.”

렸겠다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는 주인장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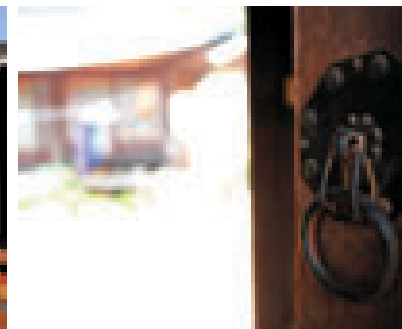
여름을 재촉하는 바람결에 군불 지피는 냄새가 없어 온다. 전날 비가 내려 사랑채 아궁이에 장작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차 한잔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옥예찬이 시작된다.

한옥은 우리 조상의 슬기와 삶이 배어 있는 우수하고 과학적인 건축물로 한국인의 삶을 담은 집이다. 한옥은 소통의 공간이다. 안방, 건넌방, 사랑방의 식구들이 마루에 모인다. 마루는 식당이요, 관혼상제의 공간이요,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다.

주인장의 한옥 예찬은 계속된다. “한옥은 ‘자연 환경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마루로 난 들창으로 자연의 세계와 연결되며 방방마다 달려있는 창문은 열기만 하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액자들을 만들어 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자연일진대 어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조병수 가옥은 인천시 문화재자료 16호이다. 그렇지만 눈으로만 보는 문화재가 아니다. 객이 주인과 똑같이 먹고 잘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조 씨는 몇 년 전부터 국제공방이 있는 이 섬에서 우리 것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이곳을 손님들에게 개방했다. 손님들은 사랑방과 대문채에 하룻밤 유하면서 잃어버렸던 외갓집의 향수를 되새겨 본다. 외국인들은 자연친화적인 한옥과 우리 음식에 매료되어 집을 나설 때 어김없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든다.

먹고 자는 비용은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느낀 대로 지불하면 된다. 달리 홍보하지 않았지만 알음알음 소문이 퍼져 단골고객도 적지 않다. 지난 여름 앞마당에 있는 우물가에서 등목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어 올해도 서둘러 예약하고 있다. 🍵



## ▶ 찾아가는 길

용유도로 들어가 먼저 용유초등학교를 찾는다. 학교 정문에서 10시 방향으로 길을 잡아 접어들어 약 920미터 가량 진행하면 한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868번지 ☎ 011-9746-3056





## 브라운관에 펼쳐진 인천국제공항

**Air City**

인천국제공항을 무대로 공항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 낸 리얼 항공드라마. 인천국제공항의 1%까지 담아내는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 바로 드라마 '에어시티'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MBC

### 국내 최초, 리얼 항공드라마

지난 4월 11일 인천국제공항 하늘 위에 촬영용 헬기가 비상하며 액션신을 화려하게 연출했다. 국가중요보안 문제로 촬영이 금기시된 공간에서 펼쳐진 단 한 번의 항공촬영. 바로 <에어시티>의 제작 현장이다.

<에어시티>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공항 직원과 국가정보원 요원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매일 비행기 30여대와 승객 7만여명이 드나드는 곳. 직원 3만7,000여명이 일하고 수많은 정부기관이 상주하며 또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인천국제공항.

<에어시티> 제작진은 2년여간의 기획과 1년여에 걸친 사전 취재를 통해 공항의 모습을 드라마 속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그들에게 공항은 인생이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극중 한도경(최지우)은 공항운영본부 실장으로 겉으로는 빈틈 없지만 유년시절의 불행한 기억을 안고 사는 여인. 국정원 요원 김지성(이정재)은 비상한 관찰력과 판단력이 돋보이지만,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피살당함 기억으로 죄책감과 복수심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각자 아픔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이 공항에서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드라마는 시작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지성의 옛사랑 서명우(문정희)와 도경의 소꿉친구인 강하준(이진욱)이 얹히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국경, 혹은 피난처, 때론 싸움터, 때론 기다림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네 사람의 시선을 따라 공항을 바라보면, 기존에 알던 것과는 다른 이미지의 공항과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드라마로 보는 공항의 '속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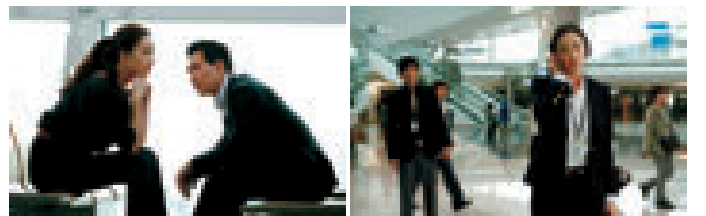
물론 공항 내 사람들간의 사랑과 갈등이 드라마의 다는 아니다.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을 무대로 펼쳐지는 만큼 색다른 볼거리가 가득하다. 공항 상공을 비롯해 교통관제건물, 에어사이드, 활주로 등 제한구역이 <에어시티>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돼 배우들과 함께 공항 곳곳을 누비는 듯한 생생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공항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와 이를 해결하는 요원들의 활약상은 박진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이야기가 전부였던 기존 항공드라마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담성. <에어시티>를 국내 최초의 리얼 항공드라마라 부르는 이유가



### ▶ 인천국제공항, 비상은 멈추지 않는다

2001년 세상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2005년 여객 1억명 시대를 연 인천국제공항.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세계 최우수 서비스 공항(국제공항협의회), 아시아 최고 효율적 공항(세계교통학회), 아시아 최우수 공항(타임지) 등에 선정되며, 세계 속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다.

영종공항도시 발전의 촉이자 인천,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된 인천국제공항. 그 힘찬 비상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2단계 공항건설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47억달러를 투입한 2단계 공사는 2002년 착수해 2008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제 3활주로 건설, 여객계류장 및 탑승동 건설, 자유무역지역 조성, 국제업무단지 추가 개발 등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기 운항이 연간 24만회에서 41만회로 늘고, 여객처리 능력은 연 3,0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화물처리 능력은 연 270만톤에서 54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온 공항은 실제의 5%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에어시티>를 만드는 일은 마치 거대한 도시를 살살이 훑고 다니는 듯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를 통해 공항의 모습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낼 것입니다.”

극본을 맡은 이선희 작가의 말처럼, <에어시티>로 인천국제공항을 재발견하고 숨겨진 면모까지 고스란히 접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16부작으로 방영되는 <에어시티>는 지난 5월 19일 베일을 벗고 그 여정을 시작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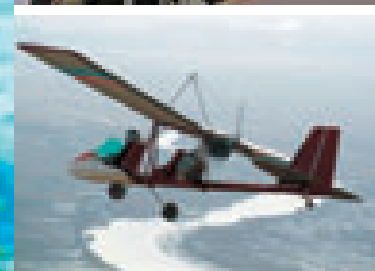
## 도전과 열정, 자유가 하늘 안에 초경량항공기



# 하늘, 땅, 물 속까지 인천을 다 가져라!

6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시원한 초여름 바람을 맞으며 아웃도어 레포츠를 즐겨보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 멀리 사라질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우리시는 어디든 즐기 못할 곳이 없다. 하늘, 땅, 물 속을 넘나드는 이색 레포츠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조성재 Studio Eye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새처럼 자유롭게 비상하기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다. 아암도 송도 비행장. 시곗바늘을 돌려 과거 항공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다. 흠먼지 날리는 비행장에 사이좋게 줄지어 있는 작은 비행기들. 눈앞에 보이는 초경량항공기는 비행기하면 떠오르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225킬로그램 이하의 무게에 차단막이 없는 작은 기체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안전하게 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하지만 그런 염려도 잠시. 인천송도비행스쿨의 김은희 대표는 비행수칙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말한다. “흔히 비행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빠짐 없이 점검하고 날씨를 확인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행자격이 주어지는 14세 이상이면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즐길 수 있지요.”

드디어 비행이 시작된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엔진소리와 함께 하늘로 가볍게 날아오른다. 그리고 이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눈앞에 보이는 건 파란 하늘뿐.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니 말 할 수 없는 희열감이 벅차오른다. 발 아래 세상은 과연 ‘내가 사는 곳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신비하고도 새롭다. 한없이 올려보아야 했던 송도국제도시의 고층빌딩들이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을 보듯 작게만 느껴진다. 새 역사를 꿈꾸며 꿈틀대는 인천대교와 추억이 어린 송도유원지는 또 다른 장관이다.

이처럼 창공을 가를 수 있는 구역은 UFA 이른바 비행공역이다. 비행장에서 반경 3마일 이내로,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 등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한눈에 품을 수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기획서를 내면 더 멀리 떠날 수도 있다. 제부도, 대천, 안면도, 목포와 광주까지 초경량항공기와 함께 세상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조건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관리하에 전문 비행스쿨에서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5시간을 단독으로 비행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인천송도비행스쿨에서는 시간당 15만원이면 비행을 마스터할 수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암도 송도비행장에 자리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동호회를 함께 운영해 회원들간에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 드리프터(Drifter)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자체 설계를 거친 완제품으로 김은희 대표가 직접 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초경량항공기에 몸을 싣고 무한공간을 가로지르면 얼굴에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다. 도전정신과 열정, 자유. 이 모든 것이 하늘 안에 있다!

초경량항공기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

인천송도비행스쿨 ☎ 834-3059 | [www.incheonaviation.com](http://www.incheonaviation.com) · <http://cafe.daum.net/drifterlove>



##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스포츠클라이밍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머를 보면 '나도 한번쯤'이라고 되내이다 이내 고개를 가로짓게 된다. 하지만 명심하라. 용기 있는 자만이 짜릿한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포츠클라이밍(Sports Climbing)은 평소에 몸을 단련하고 보호장비만 잘 갖추면 생각처럼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스포츠클라이밍인가. 우선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암벽을 오르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이 세세하게 움직여 온몸에 균형이 잡힌다. 특히 팔다리와 복근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루트를 개척하는 동안 지구력과 판단력이 길러진다. 빠른 두뇌회전과 도전정신, 강인한 체력을 키워주는 것이 스포츠클라이밍의 매력이다.

그럼 어디서 스포츠클라이밍을 시작해야 할까? 초보자는 실내 암장에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구 선학동의 인천클라이밍센터는 100평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실내 암장. 암장 전체에 매트리스가 평평하게 깔려 있어 초보자도 마음놓고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 홀드(손잡이 및 발디딤대)가 5,000여개에 이르고 암벽이 다양한 각도로 세워져 있어 프로 클라이머들도 즐겨 찾는다. 그리고 암장을 운영하는 최원일 씨가 경기지도자 1급 산악인이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클라이밍을 교육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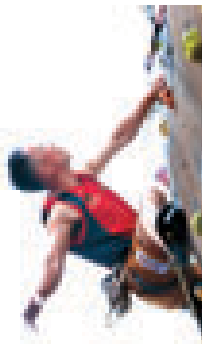
이제 스파이더맨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 보자. 우선 평소에 스트레칭과 웨이트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키운다. 특히 손가락과 팔, 어깨의 근육을 단련해야 클라이밍 테크닉을 쌓을 수 있다. 암벽을 수월하게 오르기 위해 체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몸이 단련되면 로프 없이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Bouldering)을 시작한다. 물론 만만치 않다. 처음 며칠간은 홀드를 잡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작거나 뾰족한 홀드는 관절을 다칠 수 있으므로 둥글고 큰 홀드를 잡는 것이 좋다. 홀드를 잡는 데 익숙해지면 발을 내딛을 만한 홀드를 찾는다. 그렇게 서너 달 정도만 연습하면 점차 홀드의 간격이 멀어지고 속도가 생긴다.

운동에 탄력이 붙으면 큰 규모의 암벽등반장으로 영역을 넓힌다. 문학경기장 문학유스센터가 운영하는 인공암벽장은 높이 18미터의 전문가 코스부터 초보자나 아이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작은 암벽까지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다.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종합스포츠센터에도 높이 15미터 폭 13미터 규모의 대형 인공암벽이 있다.

'산은 거기 있기에' 올라야 하는 것이다. 용기를 갖고 스포츠클라이밍에 도전하자. 땅과 멀어지고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

- 인천클라이밍센터 ☎ 817-5014 [www.iscc.kr](http://www.iscc.kr)
- 송도자원환경센터 종합스포츠센터 ☎ 820-7350 <http://ser.incheon.go.kr>
- 문학경기장 문학유스센터 ☎ 429-1318 [www.imyc.co.kr](http://www.imyc.co.kr)



## 푸른 세상 속을 거닐다 스쿠버다이빙

인간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다. 매혹적인 몸짓으로 춤추는 산호초, 평화롭게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 푸르디푸르려 눈이 시린 바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을 하면 이 모든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스쿠버다이빙은 호흡기로 호흡을 하며 잠수를 즐기는 레포츠. 마음 속에 그리던 바다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수중 스포츠의 꽃이라 불린다. 아쉽게도 서해는 조류가 심하고 물이 맑지 않아 스쿠버다이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인천에는 스쿠버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길 이 열려 있으며 다이빙을 즐기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 발족한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스킨스쿠버연합회'는 공인강사 10여명 을 중심으로 회원 400여명이 활동하는 스쿠버다이빙 모임. 강사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으로 이론지식을 겸비하였으며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뿐 아니라 수상인명구조원 강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스쿠버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스킨스쿠버연합회 구정철 부회장은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나 기대감을 갖지만, 실제로 바다에 가면 위험 요소가 매우 많다. 따라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수영을 못해도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공인된 강사가 함께하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수영을 배워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등 장비를 사용하고 스노클링하는 법을 배워 기초 잠수기술을 터득한다. 인천에서는 삼산월드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에서 스쿠버다이빙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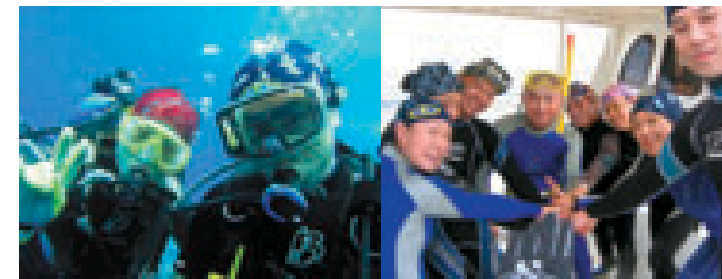
그 후에는 다이빙풀장에서 중성부력조절 훈련을 한다.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중성부력 상태가 되면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스포츠센터에는 수심 5미터의 잠수풀이 조성되어 있다. 단, 장비를 빌려주지 않으므로 잠수장비 일체를 보유해야 하며 공인된 강사와 함께 짝을 이뤄야 한다.

이젠 바다로 탐험을 떠날 차례다.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스킨스쿠버연합회는 매월 1~2회 정도 국내와 해외로 스쿠버다이빙 원정을 떠난다. 비용은 동해로 가는 당일 코스일 경우 다이빙 2회를 기준으로 15만원 정도가 들며, 해외로 4일 정도 원정을 가면 100~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바다, 밖에서 보이는 것은 그저 끝없는 수평선뿐.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펼쳐져 있다. 스쿠버다이버가 되어 미지의 세계를 자유롭게 날아 보자. 🐟

###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

-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스킨스쿠버연합회 ☎ 441-2014 <http://cafe.daum.net/inscuba>
- 남구·중구·동구 : 인천광역시체육회 ☎ 882-1034, 인천광역시수중협회 ☎ 441-2014
- 남동구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468-8188, 남동국민체육센터 ☎ 460-0500
- 부평구 : 삼산월드체육관 ☎ 500-4500 [www.insiseol.net](http://www.insiseol.net)
- 송도자원환경센터 종합스포츠센터 ☎ 820-7350 <http://ser.incheon.go.kr>







01 지난 5월 문을 연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안'  
02 추억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시민영화관'  
03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컬처 팩토리'

## Movie로 '무비(舞飛)' 시네마 르네상스 활짝

영화마니아 김지현 씨(남구 주안동·32세)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향하고 보고싶던 영화가 개봉하면 평일에도 스크린 앞에 앉는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영화를 즐기는 편이지만 특히 김기덕 감독류의 예술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엔 주로 서울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향하는 편이다. 이런 그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에 예술영화 전용관 오픈소식이 그것이다. 덕분에 이제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서울까지 발품을 팔 필요가 없어졌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 즐거고

#### 예술영화, 이제 인천에서

주안 일대가 '인천의 충무로'로 변신하고 있다. 주안역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대표적인 CGV주안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영화공간 주안(시네스페이스 주안)'이 옛 프리머스 7층에 문을 열었다. 또한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에는 남구영상미디어센터가 새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미래의 영화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5월 주안역 인근에 자리 잡은 복합상영관 '프리머스(옛 맥나인)' 7층의 5개 영화관을 구입했다. 이를 리모델링해 3개관을 예술영화 전용의 개봉관으로, 1개관은 남구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으로 운영한다. 예술영화관은 1관 120석, 2관 140석, 3관 102석 규모로 여느 멀티 개봉관

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나머지 1개관은 컬처 팩토리(Culture Factory)로 동아리나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고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대관해 주는 '작은 무대'이다.

'영화공간 주안'은 지난 5월 1일 구민의 날을 맞아 공식 개관하고 첫 개봉작으로 김기덕 감독의 신작 <숨>을 택했다. 우리나라 예술영화의 대표 작가인 김 감독의 열 네번째 작품이라 개봉 전부터 주목을 끌었던 터라 개관 기념 작품으로 선택되는데 손색이 없었다. 아나나 다를까. 개봉기념작으로 '간택'된 후 <숨>은 칸느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출품하는 영광을 얻었다.

2관과 3관에서는 개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영

화 감독들의 작품인 <씨 인사이드(Mar Adentro)>와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하나(花よりもなほ)>, <아무도 모른다> 등이 상영됐다. 이어 미셸 공드리 감독의 <수면의 과학>과 우디알렌 감독의 <스쿠프> 등이 다음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공간 주안은 영화관 1개를 '시민영화관'으로 운영한다. 한국영화의 걸작들을 다시 한번 극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추억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다. 개관을 기념해 남구의 24개 동 주민들을 차례로 초청해 추억의 한국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영화공간 주안이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영화공간 주안의 명예관장을 맡은 영화평론가 박명진 교수가 추억의 한국영화를 엄선할 계획이다. 5월에는 1980년작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과 박광수 감독의 <칠수와 만수>를 교차 상영했다.

영화공간 주안은 남구학산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영화 배급은 예술영화 배급사의 3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스폰지, 유레카, 영화사 진진 등이 돕는다. 영화비도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반값에 불과하다. 4,000원만 손에 쥐면 두 시간 동안 영화에 푸~욱 빠져볼 수 있는 것. 게다가 학산문화원 멤버십제도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2,000원으로 개봉영화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 10편을 관람하면 1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맘만 먹으면 나만의 '시네마 천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영화공간 주안은 앞으로 작품별 테마를 정한 소규모 영화제나 감독전 등도 올려 예술영화관으로서의 제 몫을 다할 계획이다.

이제 영화공간 주안과 더불어 10개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리잡고 있는 주안일대는 상업영화와 예술영화가 공존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영상문화지대로 특성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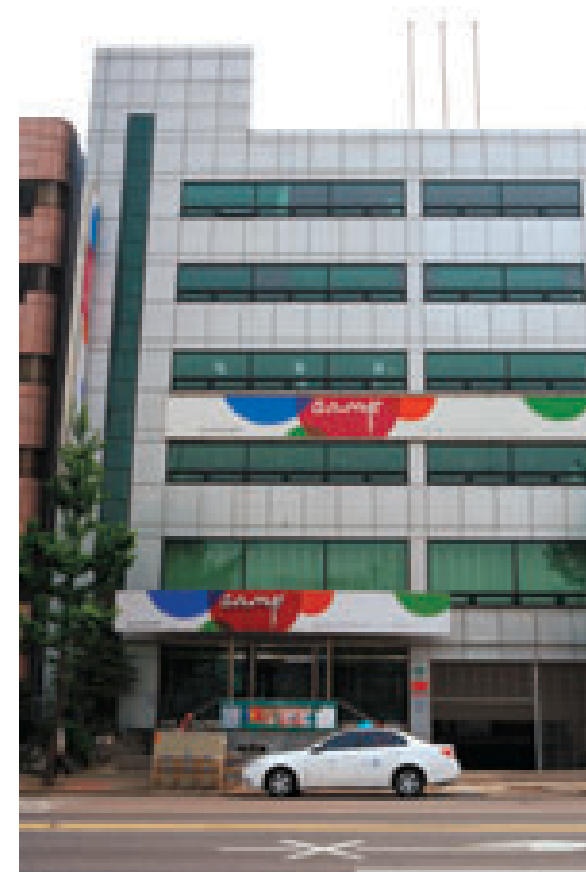
문의 ☎ 427-6777, <http://www.영화공간주안.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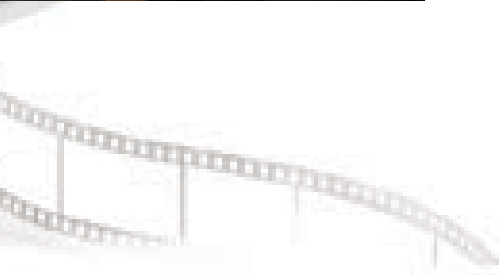
#### 미니인터뷰 | '영화공간 주안' 초대 관장 남동우



예술영화는 매력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로 예술영화를 보러 다니던 마니아들이 이제는 인천에서 예술영화를 즐길 수 있게 돼 반갑습니다. 예술영화는 주 관객층이 20~30대 여성들이지만 추억의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장년과 노년층도 우리 영화관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수의 예술영화 마니아만 찾는 예술영화 전용관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둘러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민영화관'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영화공간 주안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예술영화 전용관인 만큼 인천시민들이 예술영화에 맘껏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 예술영화전용관 개관으로 주안역 일대는 인천의 할리우드로 부상하고 있다  
02 7층에 자리잡은 '영화공간 주안'  
03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을 열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





## 영화와 인천

인천과 영화의 인연은 길다. 협률사는 을미개혁이 단행되던 1895년 세워졌다. 1908년 이인직이 세운 월각사 보다 14년이나 앞선 것이다. 협률사를 만든 이는 정치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지금의 애관극장 근처 용동에 벽돌집을 지어 협률사 문을 열었다. 특히 1912년 국내 극단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임성구의 혁신단 단원들이 이곳에서 공연한 신파극 〈육혈강도〉는 인천신연극의 효시로 기록된다. 이후 협률사는 축항사로 개명했다가 1915년 홍사헌에 의해 다시 애관극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고 연극과 영화를 주로 올리는 상설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애관 이외에도 인천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인천좌(仁川座 1897)’와 ‘가부키좌(歌舞伎座 1905)’ 등이 있었고 1909년에는 신생동에 ‘표관(驪館)’도 문을 열어 근대연극의 산실 역할을 했다.

## 지원하고 영상 속 아름다운 인천 발굴 ‘인천시영상위원회’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실미도〉, 잔잔한 영상이 아름다운 〈시월애〉, 한류 열풍을 몰아온 〈천국의 계단〉과 〈슬픈연가〉의 공통점은? 모두 인천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라는 점이다. 작품 속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은 영상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관객은 물론 언론의 ‘스포츠라이트’를 받고 나아가 관광 상품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우리시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를 출범하고 영화든 드라마든 인천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이들에게 세트장 제작지원이나 로케이션 정보지원 혹은 관광서 촬영협조 등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상위원회는 영화사 ‘미술피리’ 대표 오기민 씨를 위원장으로, 서울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명지대 연극영상과 부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미희(영화배우) 씨, 인천 출신이면서 드라마 〈왕의눈물〉, 〈연개소문〉 등을 쓴 스타급 작가인 이환경 씨 등을 영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KBS 프로듀서 이민홍, 영화 〈주홍글씨〉의 변혁 감독,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이수범 교수, 극작·연출가이자 인천시 문화예술 온라인자문위원인 박제홍, (주)사람과사람 대표 홍형석 씨 등도 우리시의 영상위원으로 위촉됐다.

우리시는 인천문화재단안에 영상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영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영상위원회 사무국은 그동안 인천에서 촬영지로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기 위해 로케이션 헌팅과 촬영사진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지원기관을 리스트업하는 등 차근차근 물밑 작업을 해 왔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임순례 감독의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 등의 인천 촬영 작업을 돕기도 했다.

올해는 구축된 DB를 토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로케이션 DB 구축사업에 착수해 제대로 된

촬영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영상위원

회는 이달 중에 사무국의 인원을 보강

해 진용을 갖춘 후 유관기관 설명회와

출범식, 팸투어 등을 통해 본격적인

촬영지원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인천문화재단 ☎ 455-7171~2

## 만들고 비디오카메라 메고 ‘나도 감독님’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엄지족’이라는 말로 대변되는데 이어 근래에는 UCC(User Created Contents)가 급부상하고 있다.

21세기 영상시대에, 영상으로 쓰고 읽을 수 있게 영상(영화를 포함한)교육을 하는 곳이 생겼다.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5층과 6층에 자리 잡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그곳이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과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비와 시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한다. 영상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성인들이 새로운 매체를 접하고 습득해 활용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02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의 5·6층에 터를 닦고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교육 공간, 제작 공간, 상영 공간 등을 갖추고 늦어도 8월 초에는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굳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동혁 센터장의 설명이다.

일단 회원이 되면 필수교육으로 영상 미디어 이해에 대한 소양교육을 거쳐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초·중·심화과정 등으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초급과정은 카메라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부터 시작해 카메라 각도, 시각 등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중급에 들어서면 영상 제작의 필요성에 따라 편집교육, 기술 송출 방법 등을 다룬다. 여기에 다른 기관의 영상 미디어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등도 덧붙일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영상미디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표현 매체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버를 구축해 웹캐스팅을 지원하고 소출력 라디오, 아파트TV, 영상 소식지 만들기,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액세스 채널을 개발한다. 이처럼 스스로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매체를 습득해 인천 시민들의 새로운 언론을 열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면 인천시민들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내 손으로 제작하고 송출한 영화, 영상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867-9169

## 비평하고 영화 제대로 느끼기 ‘하품학교’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대로 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론가와 관객이 함께 영화를 보고 다양한 형태의 삶이 녹아 있는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드는 작은 영화제가 있다. 남구 학산문화원이 영화공간 주안에서 진행하는 ‘하품학교’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하품학교’는 전문가와 관객이 함께 영화를 보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다. 올해 1월에는 이길성 씨(중앙대학교 영화과 강사)의 해설로 김대우의 〈왕의남자〉를 감상했고, 2월부터는 허은광 씨(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가 해설과 영화 소개를 맡고 있다. 2월의 알프레드 히치코 감독의 〈사이코〉에 이어 〈희생〉, 〈시네마천국〉, 〈동경이야기〉가 이 3월과 4월, 5월에 각각 진행됐다. 6월에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을 함께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하품학교 회원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전문가의 해설이 곁들여지는 예술영화제인 하품영화제가 열리기도 한다. 지난 2004년 박명진 교수와 함께 하는 제1회 하품영화제를 학산소극장에서 연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주민이 만드는 제4회 하품영화제’가 오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영화공간 주안, 도화문화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부 마니아층까지 확보하고 있는 하품학교는 일상의 활력 있는 산소공급을 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

문의 학산문화원 ☎ 866-3993

02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제작, 편집, 송출을 교육한다

03 영화를 곱씹어 볼 수 있는 하품학교

03





## 송도에 美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송도에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건설이 추진된다. 우리시와 대우자동차판매(주),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지난 5월 9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라마운트 무비 테마파크(Paramount Movie Theme Park)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9,500억원을 투입해 송도유원지 15만여평 부지에 파라마운트 플라자, 호텔, 워터파크 등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에 맞춰 놀이시설 위주의 드라이파크를 개장하고, 2010년 그랜드호텔과 워터파크를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파라마운트는 테마파크의 전체 기획과 설계를 맡게 되며,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보유하고 있는 송도 땅 28만8,000평 중 15만 8,000평을 현물 출자하고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담당한다. 여기에 우리시도 지분을 일부 출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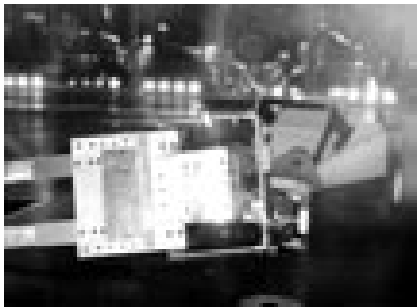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대한민국로봇대전

제4회 대한민국로봇대전(Korea Robot Game Festival 2007)이 지난 5월 1일 인천로봇게임특설경기장에서 열렸다. 경기는 배틀로봇경기와 휴머노이드로봇경기 2개 부문을 각각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전국 200여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의 장을 펼쳤다. 특히 뒤집기형 로봇과 수직 원판형 로봇 등 스피드가 2배 이상 증가된 로봇이 대거 참가해 기존 대회와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 외에도 로봇축구시범경기, 애니메이션로봇기획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432



### 인천대교 착공 700일 기념 행사

‘인천대교 착공 700일 맞이 안전기원’ 행사가 지난 5월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있었다. 인천대교(주)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했으며, 대형 시루떡 자르기와 근로자들을 위한 흥겨운 공연 한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안상수 시장은 이날 인천대교 육상제작장과 해상현장을 돌아보며, 인천대교가 안전하게 준공되길 기원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우리산 바로알기 행사

‘우리산 바로알기’ 행사가 지난 5월 15일 문학레포츠공원 내 연경산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 홍일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상수 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경산 정상 등반, 제막과 자연 정화 활동, 산 유래 청취 등의 행사가 있었다. 우리산 바로알기 행사는 우리시 통·리장연합회가 2007년을 기반기원 원년으로 삼고 월별로 각 군·구의 산을 순회하며 우리산을 바로 알리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3월 부평구 원적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34



### 영종지구 ‘영종공항도시’로 불러주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5월 16일부터 영종지구를 ‘영종공항도시’로 부르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Yeongjong Aeropolis’다. 이는 영종지구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백운산 주변 578만평을 ‘영종하늘도시’로 명하면서, 일부 시민과 언론이 영종하늘도시를 영종지구 전체와 혼동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으로 핵심적인 물류 인프라로 떠오르는 영종지구의 비전과 의미를 좀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계양구 사회복지 박람회

‘제1회 사회복지 박람회’가 지난 4월 28일 계양구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계양구는 이날 행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전달 개편내용과 희망스타트 사업 등을 홍보했다.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센터 부스를 마련해 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풍물놀이, 특별공연 등 부대행사를 마련해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걷기대회

‘2014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인천시민 걷기대회’가 지난 5월 16일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새진심 새나라! 희망인천 2007’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구간은 남동구 간석동 금호아파트~종합문화예술회관~남구 관교동 인명여고 사이 2.5킬로미터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39

### 석모도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우리시는 강화군 석모도 해협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로 지난 5월 3일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조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812메가와트급으로, 현재 세계 최대인 240메가와트 프랑스 조력발전소의 3배가 넘는 크기. 오는 2014년까지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4개의 섬을 잇는 7,700여미터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해 25.4메가와트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하게 된다. 2015년 조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연간 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 440-2871

### 도시개발 추진 양해각서 체결

우리시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5월 16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개발지역의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가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확보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3413



###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제5차 민·관 합동간담회가 지난 5월 18일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경제관련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선후보자에게 건의하는 지역경제 10대 현안과제를 채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 810-2834







## 방콕시의회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장 일행은 지난 5월 8일 태국의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본 의향서는 유천호 의원 일행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두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창규 의장 일행은 태국과 라오스의 NOC를 방문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2014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시 양국에 약속한 드림 프로그램을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아울러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양국의 참여를 이끌었다.

## 네팔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단 방문

네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이 우리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지원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선수단은 총 13명으로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가정고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인천과 서울의 주요체육시설을 방문하며, 북경 및 춘천대회, 베트남대회에 참가하는 등 알찬 일정을 보내게 된다.

이번 네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 방문은, Vision2014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네팔이 2014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미얀마 양곤시에 감사메시지 전달

인천광역시의회 이은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미얀마 양곤시 NOC 사무실을 방문해, 우동타이 NOC사무총장에게 ‘미얀마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지하고 후원해 준 것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270만 인천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의 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이은석 의원은 지난 4월 19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26차 OCA총회에서도 미얀마 정부와 NOC사무총장에게 2014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에 따른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 김을태 의원, 수도권교통조합회 의장 선출

수도권교통조합은 지난 4월 30일 제11회 수도권교통조합회의를 열고, 제2기 수도권교통조합회의 의장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김을태 건설교통위원장을 선출했다.

수도권교통조합의 2007년도 사업예산은 140억 6,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사업, 서울~하남간 간선급행버스 건설사업,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간선급행버스(BRT)운영방안 연구용역, 장암역 환승시설 실시설계용역 등이다.

김을태 의장은 “수도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조합회의를 건실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 문교사회위원회, 체육시설 시찰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삼산월드체육관과 계양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 상태를 시찰했다.

문교사회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시찰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삼산월드체육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지하 보조경기장 내 냄새의 원인인 폼알데하이드 등을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 계양국민체육센터의 열악한 헬스시설을 보충하고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 송유관 기름 유출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서구 원창동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경위와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소 채수철 지사장은 “3월 토양에 스며들었던 기름이 비로 인해 흘러나온 것이며 송유관에는 이상이 없다. 5월말에서 6월초에 1991년에 매설된 송유관을 다시 설치해 항구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산업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송유관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오염된 토양을 조속히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리를 함께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기름 유출 재발방지 및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 세계 명품도시로의 도약대

박승희 인천광역시의원



이제 2009년 8월이면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세계도시엑스포가 드디어 인천에서 개최된다. 우리 인천은 270만 시민과 함께 실현하는 명품 일류 도시 구현과 미래로 열려있는 풍요로운 명품 일류 도시 창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기반으로 한 송도국제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세계로 통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인천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규모의 도시엑스포 성공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관람객 1천70만 명의 유치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 세계도시엑스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서 콘텐츠를 제안해 본다.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메가 이벤트 유치다.

메가 이벤트는 최소 수 만 명이 여객기를 이용해 인천을 방문하고 전 세계에 중계되어 수억 명 이상이 시청할 수 있다. PGA 투어 유치, 국제 마라톤 유치, 문학경기장에서의 유명 클럽 초청 축구대회, 스타급 가수 초청 공연과 정명훈 지휘의 오케스트라, 세계적 소프라노인

조수미 음악회, 배용준 팬 사인회, 한류스타들의 릴레이 쇼 등을 준비해 볼만하다. 그리고 또 80일간의 도시엑스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로 동북아 허브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메가톤급 지구촌 행사다.

두 번째는 행사 기간 중에 접할 수 있는 우리와 자매도시인 미국의 버뱅크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급의 체험관을 유치해 관광, 예술, 레저로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도시엑스포의 핵심 앵커 시설의 하나인 U-City 체험관 유지, 유비쿼터스 환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의 역할은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연결한 테마 관광과 더불어 인천에 외자 유치를 위한 기폭제를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와 30억 달러를 투자한 세계 최고 151층 빌딩이 금년 10월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이곳에 외자를 집중 유치해야 한다.

도시엑스포가 세계 일류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2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성공적인 도시엑스포 개최를 위해 우리 270만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로 나서서 명품 일류 도시 인천의 도약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어야 한다.



# 함께 사는 연습을 하자

글 · 박준희 인천YWCA 회장



베트남, 러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YWCA가 운영하는 인천여성문화회관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여성들의 국적이다. 모두 한국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이들은 한국어 초·중급반을 수강하면서 의사소통의 기쁨을 느끼고 가족, 이웃간에 정을 쌓고 있다. 이들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밝은 표정이 샘 솟는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하는 날에는, 어린시절 소풍이라도 가는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해설가의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않는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의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고 있을 때 놀이방에서 전래동요를 부르고 한글을 배우며 온누리안\*으로서의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한국주부들도 처음에는 이들을 낯설고 신기해 했지만, 이제는 한 울타리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으로 여기고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260배나 증가했다.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은 4만3,121건으로 국내 결혼의 13.6%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외국여성과의 한국남성의 결혼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편견으로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우선 그들을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950년대 한국이 전쟁 직후 매우 어려웠을 때 스리랑카가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부모는 아이들에게 '외국인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므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더불어 살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에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바로 이주민 자녀들의 인격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눈동자에 시름의 눈물이 맺히지 않도록, 혹시 마음 속에 편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야 한다. 인천YWCA도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인정하고, 한국인과 이주민이 제도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 자녀를 주로 '코시안' 이라고 부르나, 여성문화회관에서는 공동체 의미를 담은 '온누리안' 으로 부른다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아내인 동시에 친구일 수 있는 여자가 참된 여자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여자는 아내로도 적당하지 않다.” - W.펜

부부로 만나 함께 사는 동안에 '남편은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가부장적 관계보다는 평생을 친구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더욱 절실히 지는 이유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고 사회에서 은퇴한 인생의 뒷안길에 곁에 오랜 친구 같은 남편이 있기에 그리 외롭지 않아서리라.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부부를 주종관계로 생각하면 결코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없다. 부부가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절친한 친구관계로 지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Welcome to Incheon, the gateway to North East Asia

동북아에서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은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영종공항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바다의 향기를 맡으세요.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한 인천국제공항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알아볼까요?

Immigration Official	Hello. Welcome to Incheon City. What is your name?
Visitor	My name is Tom.
Immigration Official	Where are you from?
Visitor	I'm from the U.S.
Immigration Official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Visitor	I heard that Incheon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historical cities in Korea, and I wanted to tour some of your famous sites like Chinatown, Ganghwa Island and of course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 am already impressed with this amazing airport.
Immigration Official	Thank you.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Visitor	Sure, here you go.
Immigration Official	Here is your passport. Welcome to Incheon, the gateway to North East Asia. Enjoy your visit.
Visitor	Thank you very much. I am very excited.

출입국 사무원	안녕하세요.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방문자	제 이름은 탐입니다.
출입국 사무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방문자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출입국 사무원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문자	인천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의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차이나타운, 강화도 같이 유명한 곳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멋진 인천국제공항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원	감사합니다.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방문자	물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원	여권 받으세요. 동북아 국제도시의 관문인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자	매우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

제공 : 인천영어마을(ICEV. ☎ 560-8171)





# 꼼꼼히 챙기면 건강 가득 실속 담백

지난 4월 25일 아이를 출산한 최은재(남동구 간석4동·32세) 씨는 아기를 낳기 전 걱정이 많았다. 수술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씨는 얼마 전 아기를 낳은 시누이의 추천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족보건의원으로 진료 병원을 옮기고 이곳에서 출산을 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최씨가 낸 돈은 35만원. 정상분만을 했으면 무료로 분만할 수 있었지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다. 퇴원할 때는 아기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무료로 받았다. 우리시가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덕분이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01

01 우리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시는 아기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등록하고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 올해 우리시가 출산장려사업에 사용할 예산은 모두 58억8,200만원에 달하고 5만5,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아는 것이 힘’을 넘어서 ‘아는 것이 돈’인 셈이다.

## 건강검진부터 시험관아기 시술까지 OK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동안 가족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2세를 꿈꿀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커뮤니티에 참가한 조정미 씨(남동구 만수5동·32세)도 그 중 한 사람. 결혼 3개월 후부터 아기를 갖고려고 노력했지만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신우신염에 걸려있었다. 지난 3월에 수술을 했고 지금은 불임커뮤니티에서 교류를 넓히는 한편 임신부교실에도 참가해 건강하게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조 씨는 다른 곳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지만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신혼부부가 검사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비가 모두 무료다. 관할 보건소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남편은 신부전의 6종과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으로 3만7,000원을, 아내는 여기에 풍진, 갑상선, 심전도 검사 등이 추가돼 7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11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지만 자연 임신이 힘들어 시험관 아기를 원하는 부부들도 많다. 하지만 시험관아기 시술은 절차가 복잡한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기 갖기를 포기하게 단들기도 한다. 우리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이런 부부들을 돕는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35만2,697원 이하)의 소득인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시험관아기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우리시의 인하대병원, 길병원, 서울여성병원 등에서 시술받으면 1회에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한다.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는 가족계획 표어가 권장될 정도로 아기 적게 낳기를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기를 하나만 낳는 부부들이 많고 피임의 수단으로 정관, 난관수술을 쉽게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수술을 통해 피임을 한 부부들이 다시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정관, 난관 복원 비용이 비싸 포기하기 쉬웠다. 이제 보건소를 통하면 정관, 난관 복원 시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정관, 난관 이상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도 시술 대상이다.

## 무료로 아기 낳고 출산준비물 받고

임신 35주째인 김진희(남동구 간석동·34세) 씨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임신부교실을 찾았다.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분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녀가 찾은 곳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02

02 올해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03 건강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임신부 교실



03

임산부교실, 라마즈호흡법, 관절이완법 등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는데다 가족보건의원에서 무료분만을 할 수 있어 임신 30주 즈음에 이곳으로 병원도 옮겼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2박 3일간 입원하는 동안 25만원이 지원돼 본인부담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김 씨처럼 계획했던 아기를 가졌다면 바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자. 임신부로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형아 정밀 검사, 풍진, 임신성 당뇨, 초음파 검사 등 산모건강검진 본인부담금 7만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꼭 보건소에서 진료받지 않더라도 진료영수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 망설일 필요 없다. 여기에 임신 20주부터 산후 1개월까지 철분제를 6개월간 무료로 지급받는다. 분만을 전후해 우유병, 기저귀 등 1인당 3만원 상당의 출산준비물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지역도 있다. 웅진군은 둘째아에게 100만원을, 강화군은 첫째, 둘째아에게는 10만원을, 셋째아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웅진군에서 태어난 아기는 영유아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신생아 소모품인 물티슈를 지급해 준다.

### 친정엄마보다 더 자상한 도우미서비스도 ‘공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가 낳은 아기는 모두 우리시의 지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아기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수조제분유를 연령별로 지원하고 갑상선기능저하 등에 대해서도 27만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4인 가족 기준 475만2,697원 이하)의 가정이나 셋째아로서,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아 치료를 할 수 있다.

지난 3월 26일 둘째 아이를 출산한 한미경 씨(가명 계양구 임학동·28세)는 산모도우미 이순이 씨에게 ‘산후조리’를 받고 있다. 아침 9시에 집으로 온 이 씨는 아기 분유 먹이기, 목욕, 아기빨래, 설거지, 청소, 산모식사 등으로 한 씨를 돕는다. 보건소에 등록한 덕분에 도우미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3인 가족 기준 191만8,000원)의 가정에서 아기를 낳은 경우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2주 동안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도우미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부, (사)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해피케어 산모도우미 등에서 산모도우미 교육을 마친 후 보건소를 통해 원하는 산모들을 찾아간다. 산모도우미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관리부터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엄마 젖이 아기에게는 최고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먹이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시는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의 장점을 알리고 모유를 먹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신·증축할 때 모자동실제를 적극 권장한다.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를 찾았을 때 아기 젖을 먹일 마땅한 곳이 없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우리시 모든 군·구 보건소나 민원실에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된다. 아직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웅진군에 설치비를 지원해 엄마들이 맘 놓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게 돕는다.

이처럼 아기를 갖고, 낳고, 기르는데 우리시가 적극 힘을 보태 2005년 현재 1.07에 이르는 출산율을 오는 2010년까지 1.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의\_시 보건정책과 ☎ 440-2740,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부 ☎ 431-4000, 각 군·구보건소

04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족보건의원에서 무료 산전검사를 받고 있는 산모

04



## 산모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보건소

노인이나 아기들의 예방접종 등을 위해 찾는 곳으로만 알았던 보건소가 환골탈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시설로 새로 바뀌고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장년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를 하는 건강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보건소는 특히 영유아·임산부의 등록과 관리에 이어 산전·후 관리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청소년부터 장년기 여성까지 임신, 출산, 육아, 산육기, 장년기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한다. 임신부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부 영양제(철분제)지원, 출산준비물 지원, 모유수유장려사업, 정난관 복원시술지원, 분만의료비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등이 모두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장발육과 개월별 발달평가를 통해 의심이 되는 경우 민간 소아과전문의에게 종합진찰과 진단을 의뢰해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모유수유교실이나 임신부 건강교실 등이 열리는 것은 물론 아로마스트레스, 필라테스체조반(중구), 영유아성장발달검사(동구), 영유아성장 발달스크리닝(남구), 임신부건강교실(남동구), 유아마사지교실, 오감발달교실(계양구), 영유아성장발달교실, 영유아오감발달교실(부평구), 여고생대상 모유수유교육(서구), 신나는 태교교실(강화군), 임신부체조 및 모유수유실천을 위한 비디오 대여(웅진군) 등 지역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 조국사랑, 황해 마르도록 흐르리라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인천은 나라를 구해내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6·25 동란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며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적과 이웃했던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 주민들은 갖가지 전투에서 숨은 공을 세웠다. 그들은 유격대원으로서, 첩보대원으로서 백의종군하며 자유수호를 위해 온 몸으로 적과 맞서 싸웠다. 우리지역 곳곳에는 호국 영령들의 넋이 살아있는 현충탑이 세워져 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수봉공원 현충탑** \_가족들의 휴식터로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수봉공원에는 현충탑과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가 있다. 현충탑은 인천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영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72년 4월 25일 공원 정상에 세워졌다. 비문에는 '나라를 지킨 영령들을 여기 모신다. 몸은 쓰러져도 넋은 나라를 놓지 않고 뜻은 겨레와 얽매이어 장하고 매운 정신 황해 마르도록 시민의 가슴에 흐르리라' 라고 새겨져 있다.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거주하던 애국 학도 643명이 의용군을 조직해 4차에 걸쳐 조국전선에 참전해 활약한 장한 뜻과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1979년 10월 1일 수봉공원에 건립됐다. 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 편입되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는데 이중 60명이 전사했고 87명은 실종됐다.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_ 1950년 12월 18일 인천학도의용대 2천여 명은 축현초등학교에서 출정식을 갖고 남해해 600여명은 마산에서 해병대로, 1,300여명은 부산에서 육군으로 자원입대 하였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200여명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내며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세에 참다운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2000년 10월 18일 인천학도의용대 6·25 참전회가 주축이 되어 자유공원에 청동, 콘크리트 재질로 육각연필형 참전기념비와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을 세웠다.

**해군 영흥도 전적비** \_1992년 12월 2일 높이 12m, 청동상조각상 27m의 크기로 건립된 해군 영흥도 전적비는 해안경비와 첩보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영령들을 위해 세워졌다.

옹진군 영흥도는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이었다. 그곳은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앞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첩보활동의 주요 기지였다. 미 국동사령부 크라크 대위 일행과 우리 해군 첩보대원 17명, 그리고 영흥도의 애국청소년 60여명은 십리포 해변에 기밀 작전기지를 두고 섬 해안을 경비하면서 첩보전에 임하였다. 그들이 성공리에 수집한 정보는 9·15 인천상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9월 14일 인민군 부대가 대부도 쪽에서 영흥도를 기습 공격했다. 대격전 끝에 우리 해군 10여명과 영흥도 애국청년인 해군의용단원 등은 섬 사수를 위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가 인민군 부대에 밀려 모두 전사했다.

**을왕리 충혼비** \_1950년 11월 17일 평안북도에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를 하자 평안도 일대 각 면의 치안대는 힘을 모아 1950년 11월 22일 백마부대를 만들었다. 백마부대는 서해의 여러 섬으로 다니며 유격전을 펼친 끝에 북한군 사상자 5,400명, 포로 235명, 애국동포 구출 1만5,000여명, 적군시설 폭파, 적 선박 격침 등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이에 못지않게 아군 500여명이 전사하는 등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이 충혼탑은 그때 희생당한 전사자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휴전 뒤인 1953년 10월 13일 용유도 을왕리에 탑 2.5m 높이로 세워졌다.

**강화군 일대 현충탑** \_강화특공대 의적 불망비는 1950년 10월 30일 중공군 개입으로 북진한 국군이 후퇴할 때 강화군 하점면에서 250명의 향토방위특공대가 조직되어 강화군에 침입한 공산군과 격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나 19명의 특공대원이 장렬히 전사했는데 그들의 전공과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건립되었다.

강화읍 관청리 현충탑은 휴전이 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몰한 강화출신 군경 및 유격대원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3년에 건립되었다. 1994년 6월 현 위치에 기단높이 1.5m, 비높이 17.1m 크기로 재건립하였다.

한국유격군 을지타이거여단 충혼전적비는 육군 을지 제2병단과 함께 '타이거여단'이란 이름의 반공유격대 8240부대 용사들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던진 것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들은 소총이나 폭발물만 지니고 적의 군사시설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폭파시키고 흉탄에 맞아 피 흘려 쓰러져 갔다. 북녘 산천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교동도에 기단높이 1.2m, 비 높이 7.2m의 돌비석으로 세워졌다.

**옹진군 일대 충혼탑** \_연평해전 전승비는 1999년 6월에 일어난 '연평해전'에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한 해군장병들의 충정어린 감투정신과 빛나는 무훈을 기리고자 연평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탑신 6m의 높이로 세워졌다. 우리 해군은 이 해전에서 초계함 2척, 고속정 10척이 참가하여 북한 해군함정 10척 중 어뢰정 1척 격침, 중·소형 경비정 5척을 대파시켜 한국 해전사상 유례없는 전과를 올렸다.

해군14용사 충혼비는 1950년 3월 25일 해군 첩보대원 14명이 백령도 주둔 부대에서 해군 함정 302호 편에 승선하여 황해도 장연군 월래도(달래섬) 근방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에게 발각되어 무참하게 집단 사살 당한 것을 기리기 위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세운 것이다.

반공유격 전적비는 1951년 2월 28일에 유엔군 관할 하에 8,000여명의 반공유격대(8240부대 통키부대)를 조직해 황해도 일원의 기습작전과 백령도 수호를 펼치며 북한군 4,000명을 사살하고 57명을 생포했는데 그 유격대원들의 영령들을 위로하고자 기단높이 1.92m, 비높이 1.33m로 건립되었다. 비에는 당시 윤보선 대통령의 휘호가 새겨졌다. 🐦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인천은 나라를 구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 싱거운 채식 식단이 최고의 예방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말도 잘 안 나온다면 어떨까? 또 내 대소변 처리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있었을 때 중풍 환자들이 참 많았다. 중풍하면 보통 연세 지긋한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생각되는데 30, 40대에도 심지어는 20대에도 중풍으로 쓰러져 입원하는 환자가 있었다.

중풍은 현대의학적으로 뇌혈관질환을 말한다. 풀어 말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손상이 오는 병인데 뇌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상은 보통 좌우 어느 한쪽으로 마비가 오고 어지럼증, 언어장애, 연하장애(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안면마비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중풍이 심하게 오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마비가 심해 계속 누워서만 생활해야 할 수도 있으며, 대소변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하기도 한다.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어린아이 수준으로 지능이 퇴행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병간호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가중되는 치료비 등으로 우울증이 와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중풍은 잘 치료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후유증이 남는다는데 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은 예방이 최선이다.

수련의 때 중풍환자를 진료하며 어떻게 하면 중풍에 이환되지 않을까 책도 보고 고민도 해봤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풍환자가 흔히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다. 중풍의 위험인자라고도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흡연, 가족력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풍에 이환되지 않으려면 먼저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중풍 위험인자들의 대부분은 음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곧 식원병(食原病)인 것이다. 20세기 초 만해도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이러한 질환들은 희귀병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음식문화가 육식위주로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중풍 예방을 위한 식생활은 무엇일까?

**첫째, 채식위주의 식사를 권한다.** 김치, 된장국, 나물, 고추, 오이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전통밥상은 최고의 웰빙식이다. 다만 짜지 않게 먹어야 한다.

**둘째, 고기와 밀가루음식, 설탕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장이 긴 동양인에게는 육식이 적합하지 않으며 육식자 체가 비만, 동맥경화,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생선을 먹는 편이 낫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는 DHA, EPA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중풍, 심장질환의 발병을 막아준다. 또한 밀가루 음식과 설탕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당뇨병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반면 잡곡밥은 자체로 섬유질이 풍부해 흡수 속도가 조절되므로 당뇨병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셋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현대의 먹거리는 상당 부분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부제·색소 등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향생제·성장촉진제 등으로 키워 생산한 육류, 다른 영양소는 다 제거되고 단순당으로 구성된 설탕 등의 섭취가 늘면 늘수록 우리 몸에 쌓이는 오염물질도 늘어난다.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을 빨리 체외로 배출 시키는 것이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청소할 때 물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매일 2리터의 물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다만 공복에 차나 음료가 아닌 물을 마셔야 한다.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중풍 예방은 물론 다른 질병에도 이환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어지럼증, 반신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등의 중풍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하고 평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중풍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것을 권한다. 🍃



글·송일현 인천광역시의료원 한방과 과장



# 아픔 허물고 희망을 짓다

우리시와 이라크 아르빌(Erbil)주(州)가 형제의 연을 맺었다. 한국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도시로 잘 알려진 아르빌. 최근 전후 재건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화려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건설기술이 아르빌의 발전을 돕고 우리기업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포문을 열길 기대해 본다.

이라크 아르빌(Erbil)주(州)는 한국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면서 지역재건, 기술인력 양성, 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치고 있어 한국과는 인연이 각별한 곳이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이기도 하다. 수백 년간 통신의 중심지이자 비단길의 주요 관문이었으며, 이라크 전쟁 후에는 복구사업 추진으로 개발의 물결을 타고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예상되는 전후복구사업비는 약 300조원으로 아르빌국제공항 증축, 도로 확장, 주택 건설, 레저타운 건설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지난 5월 10일 개발 붐을 타고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아르빌과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나우자드 하디 마우루드(Nawzad Hadi Mawlood) 아르빌 주지사와 레샤드 오마르 무하메드 아민(Reshad Omar Muhamed Amin) 쿠르드자치정부 교통통신부 차관은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과 우호도시결연의 향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천지역건설업체가 아르빌에 진출해 도시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건설기술을 교류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마우루드

아르빌 주지사는 댐 건설, 수자원 개발, 농업관개수로, 발전(전기), 원유추출(탐사작업), 건축, 도시재개발, 정보산업, 성채 개발 및 보존 등에 한국 건설기술과 교류할 것을 희망했다. 그리고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아르빌 지역 재건사업에 참여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건설기술 외에도 문화예술, 공항물류산업개발, 정보통신 분야 등 두 나라의 공동관심사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앞으로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등을 통해, 심장병, 사시, 연창이 등으로 고생하는 아르빌 어린이들을 치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인천, 우리시의 우수한 건설기술을 바탕으로 아르빌의 재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시가 아르빌과의 우호협력을 다리 삼아 중동 진출의 문을 활짝 열길 기대해 본다. 🍃

자료제공 | 시 국제협력관실

# 생명의 원천 알... 예술로 승화되다 에그아트협회

egg art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비둘기가 많은 우리 학교에 얼마 전에 조그만 사건이 생겼다. 화장실 옆의 물 빠져 나가는 비좁은 공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느라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동지를 튼 그 자리에서 어미 비둘기는 드디어 생명을 낳았다. 우리는 비둘기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아직 깃털도 없이 맨살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탄생의 신비에 감동을 받았다.

이 자연의 알에 에그 아트(egg art)라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서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회원들이 모이는 공간 '태인 공방(541-7578)'에서 회원들의 작품을 만나면서 나는 새로운 예술의 세계와 만났다.

탁자위에 올려진 작품들은 조각을 하거나 크리스탈, 금장식, 구슬 등의 장식을 붙여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알의 놀라운 변신에 창조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

품마다 깃든 정성은 감동 그 자체였다.

핸드폰 줄, 이쑤시개꽃이, 사진틀, 보석함, 시계, 반지 케이스, 액세서리, 코끼리, 돼지, 램프, 핸드백 등 작은 소품부터 고급 공예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공예품에 쓰이는 알은 타조알, 거위알, 기러기알, 오리알, 메추리알 등이 쓰인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계란은 오히려 약해서 안 쓰이고 있었다.

청둥 오리알, 기러기알, 오리알은 우리 나라 농장에서 사 오지만 거위알과 타조알은 수입을 해 온다. 알이 깨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니 깨지지 않도록 알속에 강화제인 젯소를 발라주고 커팅 기계로 재단도 하고 물감은 아크릴물감으로 여러 번 칠하기 때문에 단단해서 반영구적이라고 했다.

한국 에그 아트협회 인천지회장인 박광숙 씨는 알공예의 역사와 알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수 천 년 전 고대로부터 알은 태양의 상징이며 생명의 원천이라 여겨, 신의 제전에서도 알은 불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부활절 계란에 문양을 그려 넣으면서 시작된 알 공예가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나타내며 발전하고 있다. 알 공예는 하얀 알 껍질에 화려한 보석 및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는 공예로서, 중세 유럽 왕실에서는 궁중예술로서 눈부신 화려함과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부가가치 또한 매우 높은 고급 예술품이었다. 섬세한 손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어울리는 공예이다.

박광숙 씨는 '알'은 자연이고 신이 내린 선물인데, 진짜 '알'에 예술로서의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알공예의 매력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만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인천시 관광기념품 대전에서 핸드폰 줄과 노리개를 출품해서 그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알공예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부탁했더니 회원 중의 한 분이 임신을 못 하다가 알 공예를 시작하고 아기를 가졌다면서 '알'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모두 웃었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작품은 각자 만들어서 함께 모일 때 서로 의견을 나눈다. 매년 회원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정기 전시회를 여는 데 올해 10월에 7회 정기전시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알'은 자연이고 신이 내린 선물. 진짜 '알'에 예술로서의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알공예'의 매력이다.



부회장 김금숙 씨는 알공예를 하면서 작품을 창조한다는 자부심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긍지감도 생긴다고 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했다.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라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 모두 기쁘다고 하면서 알과 인연을 맺은 지 9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만둘 수 없을 만큼 푹 빠져 있다고 했다.

에그 아트를 배우는 데는 초·중·고급 사범단계를 거친다. 기간은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모두 사범자격증을 따서 강사로도 활동을 한다.

회원들은 대부분 문화센터나 중·고등학교 특별활동시간에 강의를 나가서 알공예를 알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일 만원 내외의 방향제, 종, 보석함 등의 소품을 만드는 데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충족감이 학생들을 사로잡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알 공예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고가라는 인식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연의 알로 만든 에그 아트 앞에 넘겨진 무한한 영역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





#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 극단 동이 블루 노트

연극 <블루 노트>(연출 김병균)는 청소년,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보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예기치 않게 폭력교사의 오명을 뒤집어 쓴 선생님, 그리고 나뭇잎의 정약감으로 무장한 학생들의 뜻밖의 방문. 하지만 이들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정황들... 연극 <블루노트>는 바로 우리에게 닥친 불편한 진실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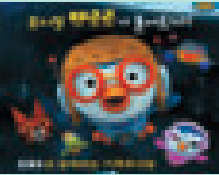
일시 \_ 6월 7일(목)~9일(토)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만5,000원 / 학생 및 청소년 1만원

문의 \_ 극단 동이 ☎ 010-6747-9756

##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



뮤지컬 <뽀로로와 별나라요정>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각기 다른 특성을 살려 춤, 노래, 마술, 특수효과 등으로 새롭게 연출한 작품. 마술, 특수장치, 재미난 소품을 활용하여 뮤지컬 속의 마술 같은 드라마를 선보인다. 집 채 만한 눈덩이가 구르고 요정이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는 등 이번 작품은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일시 \_ 6월 30일(토), 7월 1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 R석 3만원 / 2층 S석 2만5,000원

문의 \_ 창라이프 ☎ 1566-6551

## 극단 자파리연구소 일기가 사라졌어요



일시 \_ 6월 13일(수)~15일(금) 오전 10시30분, 오후 4시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일반 3,000원 (회원 2,100원) 문의 \_ 부평문화사랑방 ☎ 505-5995

## 아카펠라 원더풀



노래를 들려준다.

일시 \_ 6월 9일(토) 오후 2시

티켓 \_ 무료

장소 \_ 한중문화관 공연장

문의 \_ 한중문화관 ☎ 760-7860

단순한 것 같은 그림일기 안에는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 등 어른들이 생각 해내지 못할 정도의 무한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 그림일기장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는 행익이라는 한 아이의 일기를 통해 새로운 상상 속 공간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감미로운 재즈부터 귀에 익숙한 클래식, 팝, 가요, 민요까지 그들만의 스타일로 직접 작·편곡하여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은 아카펠라의 선두주자 '아카펠라 원더풀'. 천상의 목소리와 최상의 화음을 느낄 수 있는 원더풀이 '찬찬찬', '군밤타령', '워킹 다운 스트리트', 'Stand by Me', 'Lion Slip's Tonight' 등 우리 귀에 익은



## 모차르트 오페라

# 휘가로스의 결혼

일시 \_ 6월 21일(목) 오후 7시 / 22일(금) 오후 3시, 7시, 23일(토) 오후 3시, 7시 / 24일(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VIP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의 \_ 미추홀오페라단 ☎ 435-1281

'휘가로스의 결혼'은 부마씨의 소설을 다폰테가 대본을 쓰고 모차르트가 작곡했다. 200년이 훌쩍 넘도록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세계 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지금도 절찬리에 공연 되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

이번 미추홀오페라단의 '휘가로스의 결혼'은 기존의 오페라에서 고수해오던 형식적인 틀을 깨고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의 파격적인 의상과 '장화 흥련' '형사' '음란서생'의 미술감독인 조근현 감독의 무대 그리고 영국 왕립 음악원 출신의 성악가 겸 오페라 연출가인 신금호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인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루마니아 미하일 요라 오케스트라와 이태리 지휘자 마우리찌오 발딘의 지휘로 공연이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 지구상의 평화가 깨지고 봉건주의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배경을 삼아 새로운 휘가르가 탄생한다. 작품의 재해석으로 몇백년 지난 고전작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클래식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휘가로는 백작의 후위대장으로, 휘가로의 약혼녀인 수잔나는 백작 부인을 경호하는 보디가드로 분하여 좀더 역동적인 무대에서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음악과 접목된 연기를 즐길 수 있게 각색되었다. 사랑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치열한 두뇌 싸움을 통해 복잡한 인간 본성의 단면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월				1 연극 라이어(~3일)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6시 전석 2만5천원, 청소년 1만5천원 ☎ 429-2972	2 소리새 통기타 콘서트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사랑하면 춤을 춰라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7시30분 / 4만원, 3만5천원 오름기획 ☎ 031-258-5587	3 사랑하면 춤을 춰라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4만원, 3만5천원 오름기획 ☎ 031-258-5587
4	5 유망신인을 위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8시 / 5천원 인천오페라합창단 ☎ 858-5775	6	7 연극 블루노트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5천원, 1만원, 7천원(단체) 극단동이 ☎ 010-6747-9756	8 연극 블루노트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5천원, 1만원, 7천원(단체) 극단동이 ☎ 010-6747-9756 금요일상설무대 뮤지컬버오케스트라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1,500원 / ☎ 505-5995 시립무용단 제61회 정기공연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5천원 ☎ 420-2788	9 연극 블루노트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7시30분 1만5천원, 1만원, 7천원(단체) 극단동이 ☎ 010-6747-9756 시립무용단 제61회 정기공연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5천원 ☎ 420-2788 아카펠라 원더풀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10 제16회 청소년관악제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인천음악협회 ☎ 876-8646 화인오케스트라 제13회 향상음악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 019-378-2619
11	12 성산소년소녀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2천원, 8천원 ☎ 514-4542 한국기독인합창단 기획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2천원 ☎ 501-6770	13	14 인천예교 제10회 무용과정기공연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433-3142	15 시립교향악단 제277회 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7천원, 5천원 ☎ 420-2731 형회전 피아노독주회 '어린이를 위하여II'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244-9412	16 플룻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황금종을 누는 아이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1만2천원, 1만원(예매시) 가람 ☎ 019-284-4842	17 황금종을 누는 아이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1만2천원, 1만원(예매시) 가람 ☎ 019-284-4842
18	19 소노리티 앙상블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원 ☎ 422-0738	20 연극 황혼열차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극단엘칸토 ☎ 011-9498-5077 시립합창단 제107회 정기공연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5천원 ☎ 420-2784	21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제16회 청소년음악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2만원, 1만2천원 8천원 / ☎ 438-6040 오페라 '휘가로스의 결혼'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10만원, 7만원, 5만원 ☎ 435-1281	22 시립교향악단 실내악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5천원 ☎ 420-2781 오페라 '휘가로스의 결혼'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10만원, 7만원, 5만원 ☎ 435-1281	23 중국 창주시 기예단 공연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오페라 '휘가로스의 결혼'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10만원, 7만원, 5만원 ☎ 435-1281	24 인음청소년플루트앙상블장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8천원 / ☎ 888-0808 청소년을 위한 대금정의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짜리채홀 오후 4시 / 무료 / ☎ 362-0758 오페라 '휘가로스의 결혼'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7시 10만원, 7만원, 5만원 / ☎ 435-1281
25	26 제70회 출마당 흠마당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짜리채홀 오후 7시30분 / 무료 ☎ 760-7136	27 인천구기틀릭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 011-331-4007 제70회 출마당 흠마당 시립무용단 /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8 브런치콘서트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11시 / 무료 / 시립교향악단 ☎ 420-2731 플루트와 함께 떠나는 클래식음악여행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2천원, 8천원 인천플루트라이프 ☎ 888-0807	29 전통상설 가온누리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1,500원 / ☎ 505-5995 가족마당극 놀부전(7월1일까지)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전 10시, 11시30분 / 주말 오후 1시, 3시 1만 2,000원, 8,000원 / 극단 해상 ☎ 682-7020	30 뽀로로와 별나라요정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만원, 2만5천원 / 창라이프 ☎ 1566-6551 제7회 인천클러리넷합주단 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무료 / ☎ 467-8477	7.1 뽀로로와 별나라요정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만원, 2만5천원 창라이프 ☎ 1566-6551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캔버스 '아트바스' [www.artvas.com](http://www.artvas.com)



온라인을 통해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맘에 드는 작품을 살 수 있는 갤러리가 오픈했다. 인천에 소재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15년의 예술작품집 제작 경력을 갖고 있는 성광디자인(주)는 최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나 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갤러리 '아트바스'를 구축했다. 미술분야는 아직도 대중과의 거리가 커서 일부 계층만이 향

유하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작가 입장에서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상의 전시회를 통할 뿐이었다. 이에 '아트바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화 예술인과 일반대중들을 쉽게 연결해주고 상호간의 NEED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아트바스는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온라인 갤러리 시장에 한국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여 국내 미술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의 ☎ 881-9441



# 백야 (白夜) - Since 2001

〈하늘·땅·바다 그리고 사람〉연작 기획이었던 ‘미추홀-생명의 땅’, ‘월인천강지곡’, ‘새 곳’, ‘미륵의 꽃’ 등 인천시립무용단이 선보여 온 창작 대작의 하이라이트만을 모은 무대이다. 〈백야(白夜)-Since2001〉은 2006한국평론가협회회에서 무용부문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미인도’에 이은 창작 갈라공연으로 시립무용단의 연작 기획 의도를 선명히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백야-Since 2001〉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 속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6년간의 작업에 대한 내면의 고백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창작무용을 이끌고 있는 인천시립무용단의 독특하고 풍요로운 창작 작품세계를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금번 공연은 예술감독으로서 인천시립무용단의 위상과 예술적 성취를 위해 노력해온 한명옥 예술감독이 지난 6년간의 임기를 정리하는 고별 무대이기도 하다.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일시 : 6월 8일(금) 오후 7시30분, 9일(토) 오후 4시
- 티켓 : R석 1만원, S석 5천원(단체·학생할인 3천원)
- 문의 :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 시립무용단 춤마당 흥마당 중견무용가 6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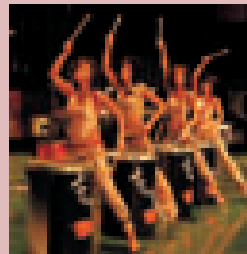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무용 거장 Big5전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다시 우리 무용계를 이끌고 있는 40대 후반의 중견 무용가 6인전이 무대에 올려진다. 전통무용, 창작무용 등 각 영역에서 독보적인 자리매김하고 있는 춤꾼들의 무대이다.

춘앵전-최순혜(일무 및 학연화대무 이수자), 진쇠춤-박은화(국립국악원 사물단원), 장고춤-전은자(성균관대학교 무용과 교수), 살풀이춤-전은경(‘한국의 집’ 전통예술단 상임안무자), 입춤-김장우(서울국악예중 무용과장), 창작타악-공명(타악 퍼포먼스) 등이 선보인다.

- 일시 : 6월 26일(화), 27일(수) 오후 7시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R석 1만원, S석 5천원
- 문의 :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4

## 한여름밤 무료야외공연



### 금요예술무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야외무대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무대이다. 다양한 공연단체들의 다채로운 공연물로 구성된 〈금요예술무대〉는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무료 공연프로그램으로 금요일 저녁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할 것이다.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6월 1일(금) 〈Fun Fun 브라스 콘서트〉
- 6월 8일(금) 〈대중가수와 함께하는 가요 콘서트〉
- 6월 15일(금) 〈한울소리와 B-boy의 만남〉
- 6월 22일(금) 〈천상의 보이스 아카펠라〉
- 6월 29일(금) 〈나운하 리싸이틀〉



### 토요상설무대

그 동안 격주 토요일 무용공연으로 진행되었던 토요상설무대가 올해 4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저녁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그리고 외부단체들의 다양한 특별공연으로 장식된다.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6월 2일(토) 〈시립무용단-지역구 문화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 6월 9일(토) 〈아수라 밴드-썸머 락 콘서트〉
- 6월 16일(토) 〈시립무용단-지역구 문화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 6월 23일(토) 〈시립극단-뮤지컬 년센스〉
- 6월 30일(토) 〈풍물패 잔치마당-타악과 B-boy와의 만남 그리고 어울림〉

## 교향악의 세계명작

# 베토벤 음악여행



매년 정기연주회 9회, 순회연주회 10회, 초청연주회 10회 등 월 4회 이상, 연간 50회 이상 국내외 공연을 하며 21세기 미래의 교향악 시대를 이끌어갈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제277회 정기연주회로 베토벤 음악여행을 준비했다. 객원지휘자 박태영은 1963년 일본 동경에서 출생하여 동경음악대학(작곡)과 평양음악무용대학(1987~1990, 지휘), 모스크바음악원(1992~1996, 지휘)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러시아국립교향악단에서 동양인 최초의 수석지휘자와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피아니스트 주희성은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 학위와 Artist Diploma를 취득했다. New Orlean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영국 런던 Royal Festival Hall에서 데뷔 독주회를 하는 등 유명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 공연곡목 |

베토벤 서곡 「코리올란」 다단조 작품.62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37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내림마장조 작품.55

- 일시 : 6월 15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 문의 : ☎ 438-7772 / 420-2781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7회 정기연주회

##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런치 콘서트

### 〈프로그램〉

브 리 든 / 오보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환상적 4중주 작품.2  
피아졸라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피아졸라  
브 램 스 / 클라리넷 5중주 나단조 작품.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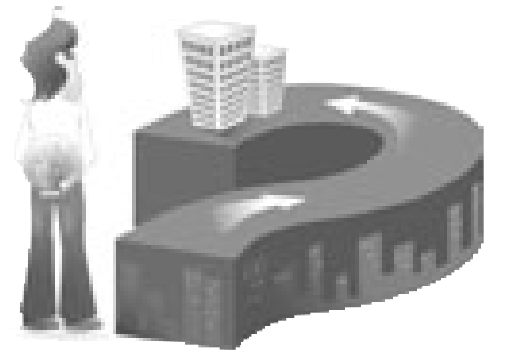
- 일시 : 6월 22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5천원
- 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 〈공연정보〉

- 일시 : 6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1만원
- 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 내집을 사해(詐害)행위로 잃지 않으려면?



**Q** '이취득' 씨는 얼마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게 되었고, 전 소유자인 '왕채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왕채무'의 채권자인 '김대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취득'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취득' 씨는 사해행위란 말도 처음 듣는데다가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김대여'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빚을 제대로 갚지않던 '왕채무'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처분하여 무일푼이 됨으로써,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더 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왕채무'와 같은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왕채무'와 같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법률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은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은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어느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나 전득자는 언제든지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의', '악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재산취득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정을 몰랐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사해행위소송에서 '김대여'가 '왕채무'의 채무가 매우 많았고, 재산처분당시 '왕채무'의 재산이라고는 집이 유일하였다는 점 정도를 주장, 입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이취득' 씨가 적극적으로 위 집을 사게 된 경위, 매매대금을 실제 주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인 '김대여'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소송결과, '이취득' 씨의 주장,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이취득' 씨는 '왕채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담보책임의 물을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빚을 부담하고 있는 '왕채무'로부터 현실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취득' 씨가 집을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이 거의 없었고, 중개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영수증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자료도 잘 보관해 두었으며, 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소송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



글 · 박소영 변호사 (로펌 로시스 861-5511)

##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굿모닝인천 5월호에 부평역사박물관이 소개된걸 보고 우리가 갔던 기억이나 사진을 찾아 보았답니다. 박물관도 그렇지만 박물관 뒤에 있는 그네와 널뛰기가 더 인기였답니다.

방순주 | 부평구 산곡2동

## 김치~찰칵



### 김치~~~찰칵!!

저 어릴 적에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인천대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멋있죠?

송진규 | 서울시 구로구

### 경찰체험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찰체험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순찰차 시승, 사격 연습, 112지령실 견학, 특공무술 시범 등 다양한 체험들로 아이에게 무엇보다도 값진 어린이날 선물이 되었습니다.

임현서 | 계양구 병방동

### 남매의 사랑

19년 전 어느날 수원 외가에 간 남매에게 사진을 찍어준다고 예쁘게 서라고 했더니 "진수야 사랑해"하며 동생을 껴안고 포즈를 취한 이 사진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사진 속 누나는 결혼해 지난 1월 자기와 꼭 닮은 딸을 낳았고 동생은 대학 4학년이 되었네요.

이영경 | 연수구 선학동

### 인천 최고 축구 커플!

대~한민국. 짹짹짹! 거대한 붉은 물결로 넘실거렸던, 감동의 2002년 한일월드컵때 만나 지금까지 알콩달콩 예쁘게 사랑해오는 우리.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는 인천 유나이티드F.C의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손을 꼭잡고 문학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인천 파이팅!

김묘정 | 부평구 산곡동

### 수박모자 쓴 아이

4살 무렵, 수박을 수저로 다 파먹고서 눈깜짝 할 사이에 머리 쓴 아들 내미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여름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전재영 | 서구 당하동

### 우와~ 엉덩이 뚱뚱한 내가 이렇게 잘 달렸다니!

난 신촌초등학교 5학년이예요.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달리기 1등을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손에 땀이 나도 안 되고 음료수를 옆질러도 안 돼요. 이 손등의 파란 도장은 며칠동안 지우지 않을 거예요.

안중현 | 부평구 부평3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활짝 개인 하늘 아래 경인가로 팔십여리 잔잔한 기복

— 조병화의 인생합승

글 · 김학균 시인

1984년 봄쯤으로 기억되는 인하대학교 캠퍼스는 사람들의 물결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신입생 환영식과 과단위의 신고식(?)으로 또는 수강신청으로 그러 했었다. ‘삼익피아노’의 홍보부 사보담당 후배와 원고 청탁차 인하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는 조병화 시인을 방문했었던 기억의 소견이다.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2번째 얼굴을 뵈었을때도 후덕한 모습은 여전했었다.

첫 번째 만남은 고 박영성 화백의 신세계백화점 화랑 개인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조병화 시인과의 원고청탁 업무 때는 좀 황당한(?) 일이 잊혀지질 않는다. 유명세가 따르는 대한민국의 시인이어서일까 선(先)지불이 없는 원고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방문을 하고서 원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참 가슴이 뵁 뚫린 기분이었다.

조병화 시인은 인천에서 출생하지도, 또한 인천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도 아니다. 82세를 일기로 작고하기까지 했수

로 7년 정도 인천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시인의 인천생활은 본인의 문학활동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기도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년을 맞은 곳으로 의미하는 바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인천문단사

로 본다면 ‘초창기 인천문단’의 형성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또는 ‘전후 개척기 시대의 문인’들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라는 것이다.

인천 문인들 속에서 인천인이 아닌 조병화 시인을 왜 논해야 하는가는 누구보다도 인천 시편이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한다. 특히 처녀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산호장, 1949)에는 26편의 시 중 Ⅱ부, 바다를 시적공간의 무대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 인천적이라는 것이다. ‘추억’ ‘나씨일가’ ‘기항지’ ‘다방 해엽’ ‘영종도’ ‘풍경’ 등 항구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확연하게 표출시킨 바 있고 주변 도서지방을 포함 인천의 정경이 삶의 모습과 함께 형상화 되어있다는 점이다.

1시집 이후 25번째 시집 「안개로 가는길」(일지사, 1981년)에서는 부총장으로 근무 할 당시의 애환을 묘사하며 인생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철학을 남게하며 표제작은 시적 성과 중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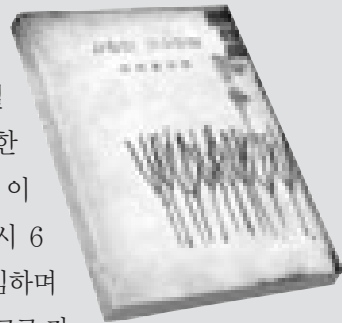
생활 터전을 찾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던 인천의 지역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시는 「하루만의 위안」(제2시집, 산호장, 1950)에 수록된 ‘인천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 4시집 「인간고독」(산호장, 1954)에서 노래한 ‘팔랑버들’ ‘인천의 서야(序夜)’ 등이 또한 그러하고 「어머니」(제2시집, 중앙출판사, 1973)에 수록된 ‘서울 인천을 두고’와 같은 시

는 인천이 담긴 시로서 대표적인 예로도 볼 수 있다.

시인의 7년 인천생활은 일본의 패망과 해방의 어수선했던 상황 하에서 은사의 작고로 이어져 1974년 인천중학교(당시 6년제 였음) 물리교사로 부임하며 시작됐고 2년 후 서울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며 인천과는 잠시 끈을 놓았던 것이다.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한 그가 문인으로서 대한민국 문단사에 찬연한 족적을 남긴 이유는 좌절과 포기, 탈출과 위안으로 시를 쓰면서 생활은 곧 시를 의미했고, 쉬운 낭만의 언어로 넓은 독자층과 대화를 이어오는데서 현대시의 또 다른 맛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81년 인하대학교 문리대학장으로 부임하며 부총장을 역임하기까지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천생활 7년은 인천을 위한 생활이었다.

‘다방 청담에서’라는 부제의 시 「흑의와 소녀」, 「양주와 시인」에서는 ‘평론가 김양수에게’라는 부제와 「관장의 회상」 ‘이경성 씨에게’라는 부제의 시를 보면 인천의 인물들을 소재로 한 글이 많았다 할 수 있으니 인천은 조병화 시인의 제 2의 고향이 틀림없다. 현재까지 아마도 전무후무한 다작, 다산의 책을 발간한 시인 이였을 것이다. 언어의 마술로 문학의 연금술사로서 문단의 별임엔 틀림없는 조병화 시인. 자연과학자로서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시인의 각오는 자기와의 피나는 싸움이었음이 분명하다. ‘시와 같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모두 잊고 다시 시작을 하며 자신을 미지의 세계로 밀고 나갔던 거대’라고 시를 쓸 당시의 감회를 본다면 시적



모티브로서 크게 작용된 인천의 바다는 어느 문인이든 버리고 싶지 않은 유산이다.

인천을 위한 시 또는 시속의 인천에서 많이 나온 시보다도 세상에 얼굴 드러내지 않은 시중에서 인천이 담긴 시를 골라 이 늦은 봄 차창의 봄을 인생과 연결, 음미하여 보자.

## 인생 합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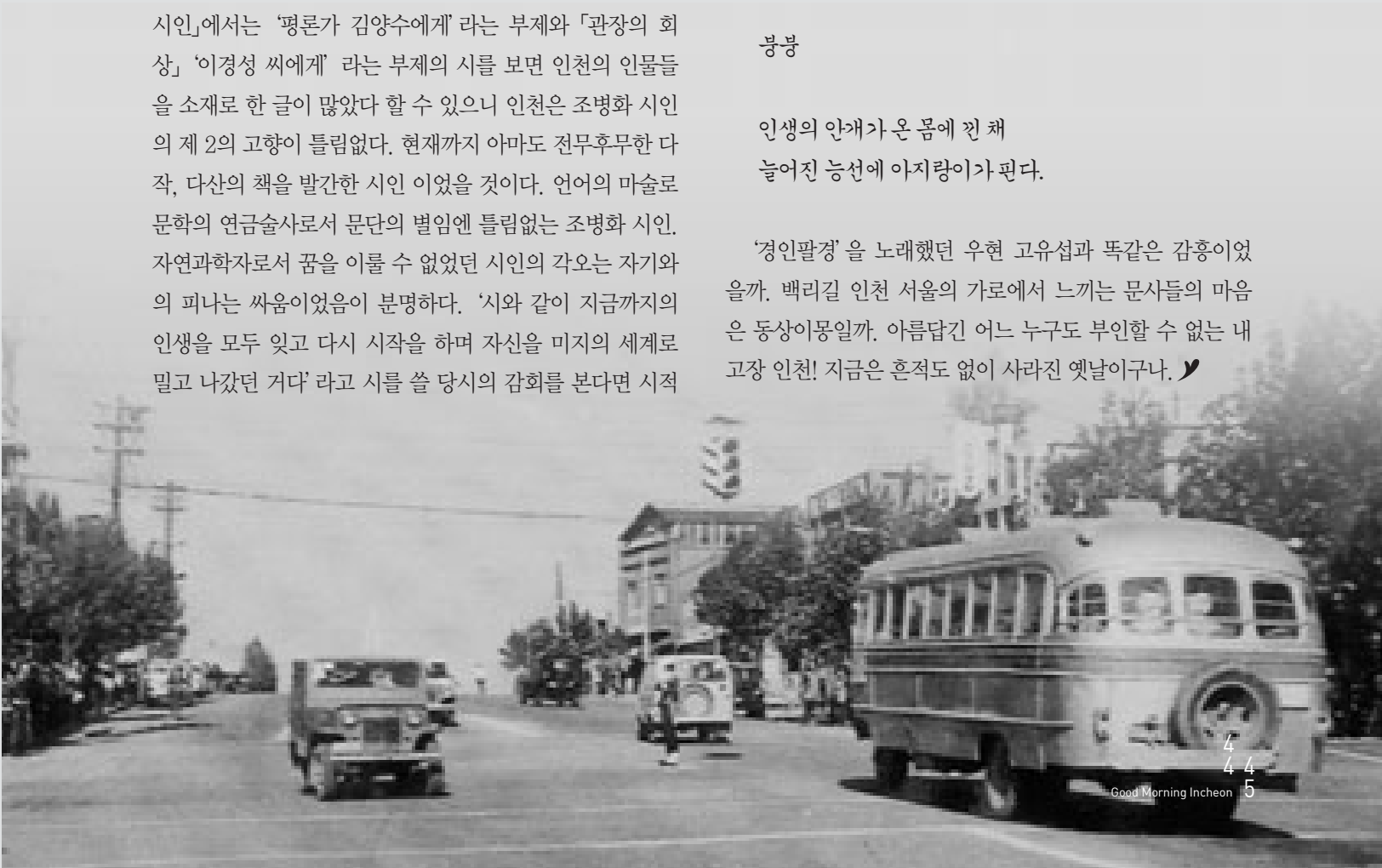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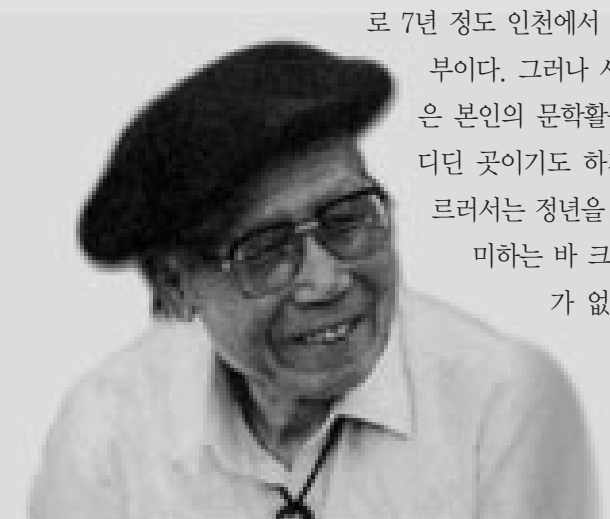
의무와 같이 살아있는 나를  
내가 안고  
오인승 인생합승에 끼면

차창은 봄.  
활짝 개인 하늘 아래  
경인가로 팔십여리 잔잔한 기복  
과수원 가지들이 손목을 흔들고  
보리 밭 양지에 풀뭉치 든다.

## 붕붕

인생의 안개가 온 몸에 켜 채  
늘어진 능선에 아지랑이가 핀다.

‘경인팔경’을 노래했던 우현 고유섭과 똑같은 감흥이었을까. 백리길 인천 서울의 가로에서 느끼는 문사들의 마음은 동상이몽일까. 아름답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고향 인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옛날이구나. 🍀



우리나라 경계를 이끄는

# 부평 자동차 산업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인천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난중인이라 사비를 아끼고?  
오늘은 인천의 자동차 역사 속으로  
출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자리에서  
태동했다.



1937년 일제는 군용 지프차를 생산하기 위  
해 부평 산곡동 근처에 '국산자동차회사'를  
설립하였다.



에또~  
여기가  
자동차  
공장자리로는  
딱이군!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면서 부평공장은  
자동차를 만들어 보지도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그 후, 우리의 자동차산업은 해방 후  
1955년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시발'이  
최초가 되었다.



'시발'은 미군용 지프차의 부품과 엔진을 재생,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만들었지만 당시 국민들에게는 타보는 게 꿈인 선망의 대상이었다.



우와~  
멋있다!

한번만  
타봤으면...

60년대는 '시발'과 함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속속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62년 첫 승용차 모양을 갖춘  
'새나라자동차'가 인천 부평공장에서  
탄생하였다.



하지만 일본 닛산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했  
던 이 차의 생산은 외환사정으로  
1년만에 멈추었고



1965년 신진이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신진은 부평공장에서 '코로나', '크라운', '퍼블리카' 등을 생산하면서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했지만



GM과의 합작으로 인한 원가부담과 로열티를 견디지 못하고  
1976년 새한자동차로 넘어가고 만다.



새한의 사장 김우중 씨는 1982년 회사명을  
'대우자동차'로 변경하였고



86년 월드가 르망이 출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 자동차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경영이 악화돼  
2000년에 부도처리가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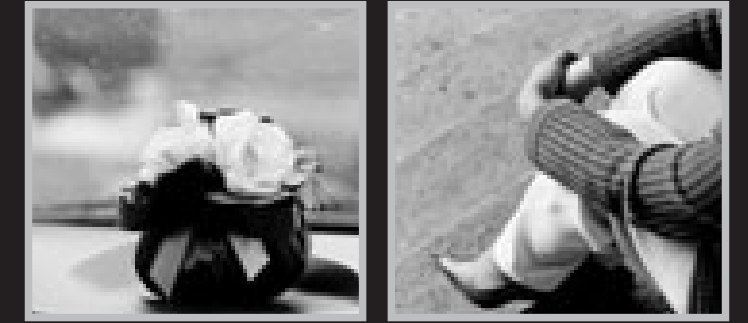
그후, 2002년 GM 대우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다시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메이드인 인천의 자동차!  
화이팅~!







## 든든한 인천의 여성 문화지기 김.진.이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김진이(金眞伊)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중년 여성이지만 인천예총 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보통 무슨 회사나 단체에서 기획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민한 머리에 스스로 톱클래스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차갑고, 태도 또한 아주 딱 부러지는 통에 둥글고 눅진한 맛이 없는데 진이 씨는 그렇지 않다. 상냥하고 밝다.

오다가다 계단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이쁘게 미소를 지어 보내고, 또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어디 다녀오느냐, 지금 나가시느냐, 따위의 인사가 짐짓 지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가는 눈웃음과 매우 상냥한 물음이 오히려 진이 씨의 큰 자산이었다. 물론 날카로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무슨 공청회 아니면 토론장 같은 곳에서나 그렇고 일상에서는 마냥 풍성하고 부드러운 감성만이 그녀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봄부터 가을까지의 여기 수봉공원 길이 참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것도 여기 길이에요. 모양도 휘움한 것이 좋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면서 나뭇가지 끝에 지어 놓은 까치집을 보게도 되고, 또 그 까치집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까치집은 이사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봄여름 동안에는 무심히 잊고 있다가 가을에 문득 발견하게 되지요. 무성한 잎새 때문에 못 보던 것을 가을에 들어서 비로소 보게 되면서 아, 어느새 가을이 깊었구나...”



이 수봉공원 길에 대해 말을 했을 때, 반은 건성으로 들었다. 아니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까치집 이야기가 이쪽 머릿속에 바로 전날 결혼을 한 다른 여자를 연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수봉공원에 한 번 올라갈게요. 참, 거기 나무에 까치집 많더라. 토요일에도 나오시나요? 전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앗튼 토요일쯤 뵈러 갈 테니까, 그리 아세요.

여자는 물론 오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듯 언젠가 여자와 이렇게 누구를 면담하러 간 적이 있다.

여자들은 까치집에 흥미를 느끼나? 수선스런 남자들 이 훨씬 그런데 관심이 많고 더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까치? 까치라... 아무튼 동그스름하고 통통한 진이 씨의 옆얼굴을 흘깃 바라보면서 그녀의 감

성에 대꾸를 잘 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미안했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돌려 왜 허구한 날 흰색 바지만 입느냐고 물어 사과와 마음을 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쑥스러운 일이다.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자주 얼굴을 보고, 짧지만 대화도 나누고, 또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회의도 하는 터에 새삼 무얼 묻고 무얼 답하나. 식당 창밖의 초여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이쪽의 그릇에 동태찌개를 듬뿍 떠 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마주앉는 것이 몇쩍어서일까.

진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문화 예술 교육 관련 사업들이다. 금년 한 해 세워진 계획만도 무려 7가지나 된다. 이쪽도 꼭 한 번 강사로 가 본적이 있지만 벌써 4년째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술경영실무자 과정이 있고, 이른바 공부방 교사를 위한 문화 예술 교육 에듀케이터 과정이 있는가 하면, 장애아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구치소 등을 찾아가 재소자로 하여금 미술을 통한 자기 표현이나 주변과의 소통성 회복, 정서 순화 및 사회 적응을 유도하는 교육도 있다. 물론 예술을 통한 환경 교육, 학생들의 예술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 놓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종료된 사업도 있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팍 짜인 일정 속에서 비명 소리 하나 없이 잘 밀고 나가는지... 대단한 독심이고 정열이다.

“전요, 우리 애, 고 3짜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혼자 힘든 것 아니다. 우리나라 고 3 전체가 힘든 것이니까, 혼자 집안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버려라’ 이렇게 말이죠. 물론 아이 얼굴을 보아서 가끔 영양식을 해 먹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절대 과잉 보호는 안합니다. 저 혼자 서도록 씩

씩하게 키우는 게 모토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기획팀장답고 똑 부러진다. 기간이라야 이제 4년에 불과하지만, 두 아이가 이런 식으로 컸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처럼 사회 활동과 살림을 비교적 편안하게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업을 하는 남편의 이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마 예충 말고도 무슨 의제21인가 하는 데에도 몸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다.

“예충에서 일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여기 와서 나름대로 인천 문화 예술을 위해 힘껏 뛰겠다는 각오였는데 아직 어렵지요?”

이제 좀 덜 쑥스러워진 것이다. 밥집을 나와 사진작가와 나란히 걸으면서 ‘학생 시절 전공했던 미술을 이제 와서 다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문화 예술 교육 사업에 손을 대었다, 또 한편 새로 공부한 미술치료(美術治療) 기법을 통해 일선 학교 상담 자원봉사도 하고, 재소자들도 찾아 나서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 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다. 대상자들을 문화 예술가로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화 예술을 즐기고 이해하고 생활화 하는 눈과 마음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를 테면 문화 예술의 충실한 수요자이면서 올바른 향수자를 양성하는 코스인 셈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이 사업에 손을 대 4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4년으로는 자신의 목표에 아직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커피를 마시고는 전망 좋은 방에서 사진작가가 서둘러 몇

컷트, 진이 씨 얼굴을 찍는다. 2시에는 어느 중학교에 가서 상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려나? 수봉산이 납작하게 내려놓렸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다. 구름이 끼었다, 비를 뿌렸다, 개었다... 이쪽도 시간이 없어 마음은 조금 급해지는데 날씨처럼 질문을 종잡지 못한다. 그렇게 애쓰다 생각해 낸 것이 고작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뭇한 그녀의 ‘마음 고생’에 대한 것.

“네. 조심스러워요.”

그녀가 조금은 힘겨웠다는 듯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은 누구와 얹히고 설켜 사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진이 씨인들 그걸 어찌나. 사진작가인들, 편집장인들, 또 이쪽인들, 아니 이 세상 누구인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참으로 진부하고 흔해빠진 해답이 있을 뿐.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을까. 하지만 굳어진 분위기를 금세 물렁물렁하게 돌려놓는 재주는 그녀의 것이다. 얼굴이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화장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녀의 후회가 웃음을 피워 올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아무리 우울한 경우에도 이내 밝아질 수 있다는 것. 진이 씨는 마음이 종달새처럼 맑고 명랑한 그런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녀의 농담 속에서 함께 있던 모두가 그녀의 그런 면을 읽는다.

“우리 인천을 위해서 정말 힘을 모아 주셔야 해요.”

문화지기 김진이 씨의 기대만큼, 바람만큼 인천의 문화 예술이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설혹 그것이 순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그녀가 있으니 그래도 든든하다. 🐦



## 마음 속의 사진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조그마한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며 지날 때마다 이 사진관에 걸려있는 눈이 동그랗고 예쁜 내 사진을 보며 지나갔었지요. 학기 초에 학교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관에 가서 찍었는데 아저씨가 내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사진을 걸어주신 겁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지나가며 그 사진을 보며 깔깔깔 웃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디지털카메라 때문에 동네사진관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어릴 적 향수를 느끼게 하는 사진관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웠던 옛 추억들을 이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많은 시간이 흘러 그 아름답고 예쁜 추억의 사진은 내마음 속에 영원히 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은서\_경기도 시흥시

## 추억을 찾아내는 사진첩



우리는 지나간 추억을 생각할때 꼭 사진첩을 뒤적이며 옛 추억을 찾아내곤 한다. 어린시절 엄마 손에 이끌려 어느 곳인지도 모르며 쫓아갔던 어린이대공원에 동물모습도 보이고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졸업식도 있고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은 멋진 모습과 꽃들이 만발한 교정의 모습, 그리고 새침했던 내 전성기에 처녀 적 날씬한 몸매도 보인다.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간다. 꽃들이 만발한 한적한 공원으로. 이 애도 나처럼 먼 훗날 사진첩을 뒤적이며 추억을 찾아내겠지. 그리곤 미소 지으며 나를 생각할까?

여지원\_연수구 연수동



## 사진 사랑 디카 사랑

일제에서 해방되던 해 서산 갯마을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우리반 선생님은 사진을 잘 찍으셔서 졸업 사진과 결혼할 총각 처녀 선 뵈는 사진 등을 찍어주시기도 하시는 멋진 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사진도 찍어 주시고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 할 때도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

6·25전쟁을 겪고 인천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나는 사진 찍기에 재미를 느껴 아름다운 경치나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을 많이 찍었다. 군 생활 중에도 사진을 좋아해 많이 찍고 또 소중히 간직하기도 했다.

1963년 우리나라에 자동차 제조공장이 처음 생길 때 나는 육군 병기학교에서 교무행정을 보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자동차공장 취직에 필요한 경력 증명으로 병기학교 차량 수리반

수료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쟁 중 부대 이동으로 학교에는 수료 장부가 남아있지 않은 터였다. 다음날 그가 가장 소중히 보관했던 졸업사진 한 장을 갖고 와서 근거 자료로 제시해 수료증을 주었더니, 인천 새나라자동차 공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와 사진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했다.

1970년 전국이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할 때, 나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촌의 변화된 모습을 일일이 찍어서 나눠 주기도 하고 교육성과로 대한화보에 게재해 홍보하기도 했다.

2000년에 이르러는 아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사다 주어 소소한 일상을 담을 수 있게 됐다. 계절의 변화는 물론 문화활동, 친목 회행사나 가족행사 등 모든 생활상을 카메라에 담아 그 뜻 깊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사진기를 메고 사진을 찍으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로새겨져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김종진\_남구 용현4동

## 친정아버지의 영정사진

친정아버지는 올해로 75세이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력이 좋으셔서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시고 농사일도 소일거리 삼아 거들곤 하셨는데 4개월 전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응급실을 찾았더니 급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멀뚱히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계시니 역장이 무너집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실 줄만 알았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시자 왜 건강하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뵈지 못하고 잘 해 드리지 못했나, 사는 게 바빠 늘 미루기만 하고 잘 챙겨드리지 못한 딸은 뒤늦게 회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 훌륭한 의료기술 때문인지 몰라도 중환자실에서 2주, 일반 병실에서 5주 만에 집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입으신 지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양복을 꺼내 입혀달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불편하시게 웬 양복일까 싶어 몇 번을 여쭙보니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기력있을 때 영정사진을 찍어뵈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나아서 퇴원하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텐데 왜 미리 영정사진을 들먹이시느냐며 울먹였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동네사진관에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은 아직 일러요. 앞으로 몇 년, 몇 십년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더욱 건강해지시고 젊어지셔서 훗날, 아주 먼 훗날에 더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다시 찍어 드릴게요. 하루빨리 건강해지시길 딸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효순\_부평구 삼산동

## 우리 엄마는 못말려

나는 사진찍기를 참 좋아한다. 어릴 때 우리 엄마도 사진찍기를 참 좋아하셨다. 사진기가 없던 시절, 리어카에 배경화면을 만들어 동네마다 다니던 사진사 아저씨가 올 때면 올 엄마는 고추장을 담다 말고 뛰어나가 나와 동생을 강제로 앉혀 사진을 찍어주셨다.

엄마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나도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주곤 한다. 큰 애가 중 3때니 5년 전의 일인가보다. 휴일 아침.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문학경기장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나가자고 했다. 작은 아이는 순순히 나오는데 큰 애가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나는 “가서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사진도 찍으면 얼마나 좋으냐. 엄마가 맛있는거 많이 준비했다. 얼른 나와.” 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문학경기장으로 갔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큰 아이를 철쭉 화단 옆에 세우고는 포즈를 한껏 잡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내리막길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한눈을 팔다가 큰 아이를 그대로 내리 쫓은 것이다.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 엎어졌고 이마, 팔 다리가 모두 피투성이였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머리가 핑 돌았다. 가해자는 어린아인데 어찌 하겠는가.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훈계를 하고 보낸 다음 대성통곡하며 우는 딸아이를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점점 크게 울면서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나가기 싫다니까 왜 데리고 와서 다치게 해!” 하며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였다. 간신히 진정시킨 후 나는 못 찍은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냈다. 순간 남편이 “얼굴이 엉망인 애를 무슨 사진을 찍냐? 사진 찍는게 그렇게 중요해? 에이!”하며 돌아앉는게 아닌가. 그래도 나는 굽히지 않고 뽀로통해진 아이들 얼굴도 추억일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돛자리를 깔고 준비해온 음식을 펼쳤지만 암울해진 우리 가족은 모두 나를 원망하며 좀체로 음식도 먹지 않은채 그렇게 하루해가 저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문학경기장 주변을 돌며 운동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 함박 웃음꽃이 핀다.

정혜경\_남구 주안8동



## 액자 안의 21명

오남매가 한자리에 모여 곧 다가올 시아버님의 칠순잔치에 대해 의논을 했다. 환갑잔치도 안하신 터라 자식된 도리로 칠순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가족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다. 칠순잔치날 미리 예약해 둔 사진관에 21명이 모이니 사진관이 꼭 찼다. 사진관 아저씨께선 이렇게 많은 가족은 처음 본다고 하시며 껌을 씹으셨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독사진도 무료로 찍어주셨다. 다복한 가족이라며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덕분에 칠순잔치를 무사히 끝내고 10년 전에 다녀오신 제주도도 다시 다녀오셨다. 일주일이 지나 가족 사진을 찾아오던날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두분이 결혼하시고 어렵게 45년을 사셨다. 당신들의 자식들이 출가하고 손자손녀를 9명이나 얻으셨다. 그 많은 가족을 한 폭의 사진틀에 간직하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가끔 오시는 손님들이 안방에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사진을 보고 한마디씩 하신다. 너무 보기 좋다고 다들 예쁘다고.

살기 바쁜 자식들을 사진 속에서나마 매일 들여다보고 싶으셨던 것일 게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뵈어야겠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연재\_연수구 선학동

## 다음달 글의 테마는 ‘과일’

다음달 테마는 ‘과일’입니다.

‘과일’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 (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 인천청소년문화대축제열립니다

비상 2007(Incheon Youth Culture Festival – Fly 2007)

62만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한자리에 모아 청소년문화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널리 알리고자 인천 청소년 문화 대축제를 엽니다.

■ 행사일시 : 6월 9일(토) 오후 1시~오후 9시 30분

■ 행사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일원

■ 주요내용

• 전시마당 : 청소년동아리 및 시설단체 홍보부스 운영

• 참여(체험)마당 : 월빙마당, 세계 민속의상 체험마당, 전통 탈 공예 체험마당, 구난구조 체험마당, 건전놀이 문화마당, 환경사랑 체험마당, 펠트마당 등

• 공연마당 : 식전행사(제1회 인천 청소년 락 페스티벌, 치어, 비보이, 인디밴드, DJ 축하공연 등), 공식행사(중국 대련 청소년 초청 특별공연(서커스) 등), 식후행사(공개방송(YTN STAR), 불꽃놀이)

■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66

## 위조지폐 조심하세요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986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2만1,939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에서는 위조지폐 유통근절을 통한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방지장치가 크게 보강된 새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위조지폐 식별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 은행권의 위조방지 장치

■ 홀로그램 : 지폐를 기울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나고 색상도 바뀐다.

■ 요판장상 : 눈높이에서 비스듬히 기울어보면 무늬 속에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보인다.

■ 색변환인크 : 지폐를 기울어 보면 지폐 뒷면 액면숫자의 색상이 황금색에서 녹색(천원지폐는 녹색→청색)으로 변한다.

■ 숨은 은선 : 오천원권과 만원권 초상의 오른쪽에는 가는 띠가 숨겨져 있다. 이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면 띠 위에 작은 문자가 나타난다. 천원권에는 중앙부위에 숨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가는 띠가 있다.

■ 위조여부가 의심스러운 지폐의 기번호를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화폐·경제교육 ⇒ 우리나라의 화폐 ⇒ 위조지폐 기번호 검색에 입력하면 동일한 기번호로 현재까지 발견된 위조지폐의 장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은행 인천본부 ☎ 880-0082

## 6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6월 11일(월)~6월 15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3층(안과)

• 6월 18일(월)~6월 22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3층(한방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백내장 및 녹내장 검사(안과), 통증질환(두통, 요통, 견비통 등) / 침술 및 상담(한방과)

• 안과 무료검진은 월·수·금요일은 오전에 실시하며 화·목요일은 오후에 실시합니다.

• 한방과 무료검진은 오후 20명씩 실시합니다.

■ 검진인원 : 안과 100명 / 한방과 100명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인사팀

☎ 580~6651~3, 580~6478

## 새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새로운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 손으로 말해요-수화동아리

■ 우리는 절대음감 - 악기 필요 없어! 아카펠라 동아리

■ 덩기덕 쿵덕~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얼썬! 풍물동아리

■ 참가자격 : 새로운 동아리를 하고 싶은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

■ 신청기간 : 5월 9일부터 선착순모집

■ 신청방법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에 전화, 직접방문신청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 ☎ 761-1318

## 인천중구문화원 특별 개설강좌 수강생 모집

중구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차이나타운을 기점으로 한 중국문화 홍보를 위해 특별개설강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접수기간 : 5월부터 수시접수 ■ 강좌기간 : 5월 21일~11월

■ 장소 : 중구문화원 강의실(동인천동 동사무소옆, 공영주차장 옆)

■ 강의내용

1. 전통문화특강 : 초등학교생을 위한 한국무용 강좌, 초중생을 위한 사물놀이 강좌

2. 중국다도 특강 : 차이나타운 내 중국다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 2회 중국명차를 시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강좌

3. 인천역사 바로알기 : 인천역사 바로알기 교육 및 답사수업 (개항장 근현대 유적 및 문화재, 강화 일대 답사)

4. 정규강좌 : 클래식 기타, 문인화, 댄스스포츠 외 9개 강좌

■ 문의 : 중구문화원 사무국 ☎ 761-2778, 2779

## 고수익 투자자모집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4개사는 기업의 M&A(인수·합병)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업 M&A를 통해 인수한 부실 상장회사를 건전한 기업으로 변모시키거나, 비상장회사 주식 매입 후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주가 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호언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형태에서 변이되어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기업 M&A 및 비상장주식매매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가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의 불법 자금모집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방법
①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반」 전화번호 : 02-3786-8157~9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유사금융회사 신고」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홍보팀 ☎ 02-3771-5907

## 제18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국악 배움터, 인천예총 국악문화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제1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6월 18일(월)~9월 8일(토)

■ 접수기간 : 5월 21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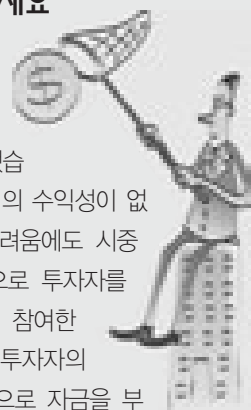
■ 장소 : 인천예총 국악회관(수봉공원 입구)

■ 강좌과목 : 가야금, 민요/장구, 풍물, 한국무용, 거문고, 판소리, 모듬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전화접수

■ 문의 : 국악문화학교 ☎ 876-8364~5

FAX 876-8367, www.kukakhall.co.kr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받으세요

올해 4월부터 만 40세, 만 66세에 해당 되시는 분은 새로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란 : 생애 전환기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 건강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비만·절주·흡연 등) 평가 및 개선 처방(lifescrpts)까지 포괄하는 예방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중점과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 대상 및 실시 기간 :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없음)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분도 모두 해당)로 만 40세(67년생), 만 66세(41년생)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 일반건강검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특정암 검사 비용 본인부담 20%도 생애전환기 대상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1차 건강진단을 마친 후 모든 수검자는 검사와 등 2차 사후상담을 전문의사에게 상담 받게 됩니다.

■ 건강진단 항목은?

• 1차 건강진단 : 만 40세 - 진찰 및 상담,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등 총 23개 항목 / 만 66세-진찰 및 상담, 골밀도 검사, 노인기능검사 등 총 26개 항목

※ 간염검사는 본 사업에서 만 40세만 포함됨

• 2차 건강진단 : 만 40세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및 상담,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 만 66세-고혈압·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치매 및 우울증),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 특정암검사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문의 :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건강관리팀 ☎ 452-7114

## 친구들이 의사소통 캠프 가자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여름방학기간에 '의사소통' 캠프를 엽니다

■ 일시 : 8월 9일 ~11일(2박 3일)

■ 장소 : 경기도 화성 하네청소년수련원

■ 대상 : 청소년이면 누구나(선착순 40명), 7월 31일까지 접수

■ 회비 : 2만원

■ 내용 : 의사소통, 사진 말 만들기, 공동체 게임, 수영놀이 등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이영근 ☎ 777-7942





## 아시안게임 유치기념 KBS 열린음악회 열립니다

270만 시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기념하고 유치의 기쁨과 환희를 승화시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KBS열린음악회가 열립니다.

- **일시** : 6월 5일(화) 오후 6시~오후 9시(녹화 : 오후 7시30분~)  
※ 방송 : 6월 17일(일) 정규방송시간
- **장소** : 문학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 **참석** : 2만명 정도
- **출연진** : 슈퍼주니어, 천상지희, 플라이투더스카이, 마야, 이민우, 소찬휘, 박강성, 패티김, 태진아, 송대관, 소프라노 김인혜, 시립무용단 및 합창단, KBS예술단
- **식전행사** : 본방송 녹화전 댄스스포츠, 보디빌딩, 응원시범전(인천대, 인하대, SK와이번즈, 전자랜드, 대한항공 등), 시립예술단 소공연(연극 판토파미, 각설이 공연 등), 풍물패 공연 등
- **2014 아시안게임 유치성공 기념식 및 명품도시선포식**
- **초대권 제작** : KBS 초대권 2만5,000매
- **초대권 배부시기 및 방법** : 녹화 전 7일부터 시, 군·구별 배부  
※ 초대권 없이 입장불가(펜스 설치)
-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4072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종합상담** : 가족·신상·이혼·가정폭력·성폭력·아동·건강문제 등
  - 상담실 : 여성복지관 내(☎ 434-6436~7, 434-0182)
  - 간이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 522-0154)
  - 사이버상담 : <http://women-center.incheon.go.kr> → 여성상담 → 사이버상담
  - 변호사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사전 예약 후 당일 내방 및 전화상담)
-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 신청자 모집**
  - 대상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족
  - 방법 : 전문상담원 방문상담, 가족치료전문가 면접상담 및 치료
  - 내용 : 가족의 문제 해결도움 및 유관기관 연계, 심리검사를 병행한 가족치료 지원
- **건강한 가족보호를 위한 전문 테마교육** : 가족문제 예방 및 대처 기법 중심의 공개강좌
  - 정신건강 증진교육 : 우울증 및 중독의 원인과 극복
  - 대인관계 증진교육 :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참 만남
- **상담자원봉사자 (관련교육이수자) 모집** : 연중 수시
-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 **문의** : 여성복지관 상담실 ☎ 434-6436~7, 434-0182

## 명사가 들려주는 한국 미술사 특강

인천시립박물관(관장 노민철)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 박물관 시민강좌'를 운영합니다. 올해 시민강좌의 주제는 '명사가 들려주는 한국미술사 특강'으로서, 한국미술사 각 분야의 대표적인 명사들을 초빙해 특강형식으로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합니다. 강좌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조각, 회화, 공예, 건축 등 각 분야에 걸쳐 일반 시민이 흥미를 갖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시** : 매월 1회 오후 2시~5시
-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1층 대강당 석남홀
-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수강료 무료)

날짜	강사	강의주제
4월 7일	신광섭 (국립민속박물관장)	백제미술의 이해
5월 12일	이건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한국의 청동기 문화
6월 2일	소재구 (국립고궁박물관장)	통일신라 석탑의 이해
7월 7일	이강근 (경주대학교 교수)	한국의 궁궐건축
8월 4일	강경숙 (전 충북대학교 교수)	고려청자의 독자성
9월 1일	이주형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
10월 6일	조선미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의 초상화
11월 3일	이태호 (명지대학교 교수)	다산 정약옹과 추사 김정희
12월 1일	추후 섭외	한국의 근대미술

- **문의** : 시립박물관 ☎ 440-6128

##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간보호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만 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
-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차량 귀가 시간 포함)
- **이용료** : 종일반 14만원, 반일반 9만원  
(중식, 간식 포함,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 용의 및 위생관리, 중식 및 간식, 차량귀가 지도
  - 사회적응훈련 : 자연적응학습, 지역시설 이용, 관내시설 이용
  - 건강증진사업 : 병원진료, 예방접종 및 관내지도
  - 행사 : 여름캠프, 겨울놀이, 송년행사
  - 부모교육 및 간담회, 가족소풍
  - 재활치료 및 감각촉진활동 : 그룹 작업 / 언어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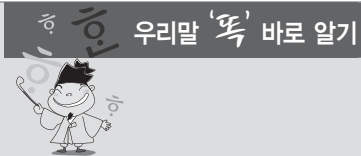
한편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 환경 속에서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인천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 직계가족  
각 과정 당 10명씩 수시모집
- **일시** : 월요일~금요일 각 프로그램마다  
다름(오전, 오후)
- **프로그램** : 컴퓨터 기초반, 인터넷 기초반,  
한글 2007문서 작성반, MS엑셀 문서  
작성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반,  
ITQ 자격증반
- **자원봉사자 모집** : 정신지체 장애인  
에게 한글과 한글 2007을 지도할 자  
원봉사자 모집(매주 화·목 오후 1시 30분~3시)
- **문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833-3051~2



## 지방의회 인턴교육 사업 참가자 모집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미래의 차세대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해 2007년 '지방의회 인턴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인천지역 거주 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새 쫓지? (○) / 참새 꼬리? (X)

'참새 꼬리' 보다는 '참새 쫓지'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꼬리'는 네 발 짐승의 엉덩이 끝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을 말하고, '쫓지'는 새의 몸 뒤에 빠죽 내민 깃털을 말합니다. 강아지한테는 '꼬리'가 있지만 참새한테는 '쫓지'가 있습니다.

## 이달의 국가유공자 정갑세(鄭甲世) 무공수훈자



정갑세유공자(1931. 4. 12~ )는 1948년 2월 제5연대 1대대 2중대에 입대하여 제주, 여수전투에 참가했다.  
1950년 8월 포항여중에 주둔한 보병 3사단 본부에 근무하던 중 포항 안강전투에 참가하였다. 후퇴 작전 중 사단 통신교환대 파괴작업을 수행하고 단독 후퇴 중에 체포되었으나 탈출하면서 적 2명을 사살하고 탈출에 성공하여 36연대에 합류하였다. 1950년 10월 보병 3사단 근무 중 38선을 제일 먼저 1차로 돌파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훈장을 수상하였다. 또 1952년 1월

- **기간** : 7월 2일(월)~7월 23일(월)
- **장소**
  - 사전교육 및 리더십교육 : 인천여성취업센터 회의실 (구월동 씨티은행 14층)
  - 인턴실무수습 : 인천광역시(광역시·기초)의회
- **주요내용** : 사전교육 및 리더십교육, 인천광역시(광역시·기초)의원과의 실무수습활동, 모의의회 개최, 국회 비교견학 등
- **참가인원** : 인천시 거주 여자 대학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 30명
- **참가자 모집기간** : 5월 25일(금)~6월 8일(금)
- **참가신청** :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032-440-2699) 또는 시 여성정책과 방문 신청서 제출
- **합격자 발표** : 6월 15일(금) 개별통보
- **참가자 특전**
  - 참가자들에게 교육참여 실비(교통비, 식비) 제공
  - 인천광역시장 수료증 수여
-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14

속이 짝 찹 영양덩어리

바지락



예로부터 ‘바지라기’라 불리던 것이 줄어서 ‘바지락’이 되었다. 우리나라 음식의 큰 결점은 칼슘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바지락조개 껍질가루는 칼슘을 보충하는데 좋다. 특히 어린이들의 발육부진에 먹이면 치아와 뼈가 튼튼해지며 황달과 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바지락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이 많이 들어 있어 간장을 보호해주고 흡수율이 97%이상이나 되는 질이 좋은 단백질도 들어있다. 작지만 알찬 영양덩어리가 바로 바지락이다.

바지락은 알을 배기 시작하는 5, 6월에 채취한 것이 가장 맛이 좋다. 섬이 많고 갯벌이 발달한 우리 인천에서는 바지락이 많이 난다. 특히 중구의 무의도와 덕교에서 나는 바지락이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가족과 함께하는 6·10 민주항쟁 20년!  
끝나지 않은 노래

나를 잃고도  
그대에게 대항할 힘을 가지라 하여,  
7·17이며, 6월10일이니!

· 바지락 ·  
영양덩어리

© 이철수 www.mokpan.com

마당행사 ● 오후 5시~7시  
기념식 ● 오후 7시 30분~8시  
음악회 ● 오후 8시~9시 출연 : 꽃다지, 나무자전거, 안치환

일시 : 2007년 6월 10일(일) 오후 5시~9시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주최 : 6월민주항쟁20년사업 인천추진위원회(문의032-441-0288) 후원 : 인천광역시